

부산경남사학회 학술발표회

부산경남사학회 학술발표회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13:30~17: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문관 412호 강의실(ZOOM 병행)
- 주최 : 부산경남사학회



일 정

▶대회등록 및 개회사 (13:30~14:00)

— 개회사 : 이종봉(부산경남사학회장)

<제1부 발표>(14:00~15:40)

사회 : 강정원(부산경남사학회)

1. 조선 후기 경상도 下納의 몇 가지 문제

-성주 임술민란의 사례를 중심으로-(14:00~14:40)

📖 발표 : 김영록(부산대) / 토론 : 양흥숙(부산대)

2. 조선 후기 울주 운흥사의 간행 목판 연구(14:40~15:20)

📖 발표 : 김동현(동의대) / 토론 : 전진이(통도사성보박물관)

휴 식 (15:20~15:40)

<제2부 발표>(15:40~17:00)

3.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전통

-근대 광물학 출현 이전을 중심으로-(15:40~16:20)

📖 발표 : 한상원(부경대) / 토론 : 여민주(부산대)

4. 18세기 토스카나 대공국의 계몽주의 개혁과 피에타 보호소(16:20~17:00)

📖 발표 : 변선경(피사대) / 토론 : 임동현(신한대)

▶윤리교육(17:00~17:10)

▶폐회사

ZOOM 주소 : <https://bit.ly/3k28DJP>,

회의 ID : 978 7833 0071 // 비밀번호 470882



목 차

1. 조선 후기 경상도 下納의 몇 가지 문제-성주 임술민란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영 록 · 1
1-1. 「조선 후기 경상도 下納의 몇 가지 문제」 토론문	
.....	양 흥 숙 · 14
2. 조선 후기 울주 운흥사의 간행 목판 연구	
.....	김 동 현 · 16
2-1. 「조선후기 울주 운흥사의 간행 목판 연구」 토론문	
.....	전 진 이 · 28
3.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전통	
-근대 광물학 출현 이전을 중심으로-	
.....	한 상 원 · 30
3-1.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전통」 토론문	
.....	여 민 주 · 51
4. 18세기 토스카나 대공국의 계몽주의 개혁과 피에타 보호소	
.....	변 선 경 · 53
4-1. 「18세기 토스카나 대공국의 계몽주의 개혁과 피에타 보호소」 토론문	
.....	임 동 현 · 61

조선 후기 경상도 下納의 몇 가지 문제

-성주 임술민란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영 록 (부산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하납체계의 정비와 제반 규정의 보완
- III. 1862년 임술민란과 하납: 星州의 사례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후기 대일공무역의 결제수단으로 대마도 측에 지급되는 公木, 公作米와 왜관에 체류하는 倭人들에게 지급하는 倭料米·太, 魚價米 등은 경상도 각 읍에서 징수되어 동래부로 이송되었다.¹⁾ 이를 下納이라 한다. 서울로 세금이 이송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上納이라 칭하며, 하납은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래 중앙으로 납부해야 하는 재원을 지방의 국가기관으로 납부한다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다.²⁾ ‘전라도와 경상도는 국가 경제의 근본인데, 영남의 절반이 모두 하납으로 돌아가니...’라는 채제공의 지적처럼 하납의 운영은 경상도 재정 운영의 핵심 중 하나였다.³⁾ 하납으로 표현되는 대규모의 재원이 특정한 곳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상도 재정 운영의 특징적인 면모다.⁴⁾ 이는 대일외교와 무역을 수행했던 倭館의 존재에 기인하며, 하납은 재정 물류가 무역 물류로 전화하는 과정으로 대일무역이 국가 재정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정사와 무역·외교사, 각 분야의 연구에서 하납은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재정사 분야에서는 경상도 재정의 특수한 운영 방식에 주목하여 경상도 하납읍의 편성과 체계, 각 재원의 출처와 유통, 전세와 대동세의 상호 교환 등을 분석하였으며,⁵⁾ 동래부의 재정 운영 및 식

- 1) 김동철, 「17·18世紀 對日 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 『항도부산』 1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3 ; 「18세기 중엽 이후 대일무역의 변화와 節目의 제정」, 『동양한문학연구』 33, 동양한문학회, 2011. 이 글에서는 비중과 변화가 더 많은 무역 재원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 2) 손병규, 「조선후기 국가재원의 지역적 분배-『부역실총』의 상하납 세물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0, 한국역사연구회, 2008, 60쪽. 『부역실총』 경상도 보고에서만 하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각 지역의 재원을 바치는 상대 기관이 행정적으로 상부기관일 경우를 ‘상납’, 낮은기관일 경우를 ‘하납’으로 표시하고 있다(손병규, 같은 논문, 58쪽, 각주 5) 참고). 더불어 하납은 下道, 즉 경상도의 세금을 동래부로 납부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김동철, 앞의 논문, 1993, 111쪽, 각주 42) 참고).
- 3) 『承政院日記』 정조 15년(1791) 7월 17일.
- 4) 문광균,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 연구』, 민속원, 2019, 18쪽.
- 5) 손병규, 『조선왕조재정시스템의 재발견 - 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 역사비평사, 2008. 문광균, 앞의 책, 2019.

리 활동과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⁶⁾ 무역·외교사 분야에서는 공목과 공작미 등 공무역 재원을 중심으로 하납 재원의 규모와 변화상을 검토한 바 있다.⁷⁾

일련의 연구는 전체적인 규모와 정책의 시기별 변화 등 하납의 구조에 주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하납체계는 대일무역과 연관되어 변동하였으며, 상납체계와는 구별되는 재정 운영 및 특수한 유통 형태를 띠었음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하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더불어 동래부와 왜관에서의 적극적인 手標 거래, 하납재원의 식리와 포흠 등을 중심으로 재원의 운용 양상이 밝혀졌는데,⁸⁾ 이는 재정 물류가 형성된 기반 위에 각 지역 및 시장 간 유통이 활성화되어 나가는 사례로 이 지역의 자원 운용이 왜관 개시무역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전개되었음을 증명한다.⁹⁾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주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하납재원의 경우, 호조나 선혜청 등 중앙재무기관에 상납하는 재원과 달리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하납은 동래부-하납읍-경상감영 등 3자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운영되면서 재원의 출납 및 유통이 상납 재원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었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재정에서 독자적 운영권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재원의 유통 및 조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이는 민의 부세 부담, 각 읍의 재정 운영, 동래부의 재정 및 무역 운영과 직결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862년 경상도 성주에서 임술민란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하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주목한다. 기존의 연구에 기대어 하납의 구조적 문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부세 또는 무역 재원을 둘러싼 민-읍-경상감영-동래부의 이해를 파악하고, 조선 후기 대일외교와 무역이 민의 경제생활에 근거한 ‘惟正之供’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한다.

II. 하납체계의 정비와 제반 규정의 보완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1609년(광해군 1)에 조선 후기 倭館의 대일외교 및 무역 활동의 바탕이 된 己酉約條가 체결되었다.¹⁰⁾ 세견선, 왜인 접대, 文引제도, 세사미, 왜관 내 체류기간 등 대일 통교의 기본적인 규범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대마도와의 무역 및 외교를 정식화하고, 다원적이었던 조선 전기의 대일관계를 동래의 왜관을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¹¹⁾

그 결과 공무역의 결제수단으로 왜관 측에 지급되는 公木은 경상도 지역의 田稅를 동래부로 직접 이송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조선 전기에 왜료를 지급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6) 오영교, 「朝鮮後期 地方官廳 財政과 殖利活動」, 『學林』 8,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86. 루이스·ジェイムス, 「近世朝鮮人の日本觀-倭館における公貿易·接待の費用を例示として-」, 『年報朝鮮學』 2, 九州大學 朝鮮學研究所, 1992. 김양수, 「조선후기 譯官의 중개무역과 倭館維持費」, 『歷史와 實學-大湖李隆助교수停年紀念號-』 32輯(下), 歷史實學會, 2007. 양진아, 「개항 전후 동래부 재정 운영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의 展開過程과 그 性格에 관한 研究 - 1790~1870년대를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8) 김동철, 앞의 논문, 1993 ; 앞의 논문, 2011. 양흥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 김영록, 「17~18세기 대일무역의 변화와 성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0) 양흥숙,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9, 62쪽.

11) 김영록,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2, 14쪽.

것이였다.¹²⁾ 하지만 임진왜란의 여파로 조세체계의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까닭에 공목은 경상도 각 읍에 윤회분정되였다.¹³⁾ 이후 1620년에 공목 하납읍이 지정되는데, 고령, 경주, 기장, 대구, 동래, 선산, 성주, 영덕, 영산, 영일, 영해, 울산, 인동, 장기, 청하, 초계, 칠원, 진해, 흥해 등 동해안과 낙동강에 인접한 19개 읍이였다. 1639년(인조 17)에는 칠곡부가 신설되어 하납읍에 포함되면서 17세기 중반 공목 하납읍은 총 20개 읍으로 늘어났다.¹⁴⁾ 당시 조세체계가 재편되면서 山郡 및 沿邑 등의 지리적 조건에 따라 징세지대를 설정하였는데,¹⁵⁾ 하납읍 또한 징세지대의 설정 범위 아래에서 편성되였다.¹⁶⁾

1651년(효종 2)부터 公作米 무역이 실시되였다.¹⁷⁾ 약 300同에 해당하는 면포가 쌀로 지급되면서 기존의 하납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했다. 새로운 공무역 재원인 쌀을 확보하기 위해 감동창 소속인 김해,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함안, 현풍 등 7개 읍에서 공작미가 조달되였다. 1655년에 공작미를 공목읍에서 동래부로 하납하도록 함으로써 공작미 하납읍은 22개 읍이 되었다가, 1662년(현종 3) 이후 공작미 분정읍은 공목 분정읍과 같이 20개 읍으로 구성되었다.¹⁸⁾ 이처럼 17세기 중반, 대일공무역의 규모 및 주요 품목의 구성이 변화한 뒤 일정 부분 고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하납체계 또한 그에 대응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이에 따라 경상도 각 지역에서 대일무역을 위해 수납된 재원은 공작미 16,000석을 포함하여 공목을 기준으로 약 1,100동 가량이였다.¹⁹⁾

1678년(숙종 4) 경상도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하납읍 또한 이에 따라 재편성되였다. 1679년 기존의 하납읍에 편중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작미의 환산가를 12斗에서 10斗로 변경하였으며, 그 부족분은 이두감대충급미·위미·위태작미 등의 대동세로 충당하였다.²⁰⁾ 더불어 영산, 진해, 칠원 등의 지역에서는 하납 과정에서 전세와 대동세를 맞교환하는 相換公作米가 도입되는 등 그 체계도 변동하였다.²¹⁾ 대동법의 실시와 연계된 하납체계의 보완은 운송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였다. 이는 같은 시기 ‘경상도민들이 상납보다 하납이 편하다’라고 인식한다는 정부의 논의를 통해서도 나타난다.²²⁾

위와 같이 17세기 전반에 걸쳐 공무역의 변화와 세제의 개편에 동반하여 하납체계가 정비되었다.²³⁾ 이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무역외교비용의 안정적인 확보에 집중되면서 전체적

12) 이종봉, 「조선전기의 倭料」, 『역사와 경계』 77, 부산경남사학회, 2010, 50~51쪽.

13) 『備邊司謄錄』 영조 25년(1749) 7월 22일.

14) 문광균, 앞의 책, 2019, 98쪽.

15) 방기중, 「17·18세기 前半 金納租稅의 성립과 전개」, 『東方學志』 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123~125쪽.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95쪽. 손병규, 앞의 책, 2008, 140~141쪽.

16) 김영록,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2, 51쪽.

17) 공작미 무역의 실시 이유와 그 과정은 정성일,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1, 66~67쪽. 김동철, 앞의 논문, 1993, 105~106쪽. 김경란, 앞의 논문, 2009.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公木」,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등이 참고가 된다.

18) 문광균, 앞의 책, 2019, 99쪽.

19) 『通文館志』(1720): 1,148동 5필 20척 5촌, 『春官志』(1781): 1,096동 50필, 『增正交隣志』(1802): 1,047동 4필 17자.

20) 양진아, 앞의 석사학위논문, 2011, 11쪽.

21) 『萬機要覽』 財用 5, 公貿, 公作米 下納 ; 財用 3, 大同作貢, 各道劃給.

22) 『備邊司謄錄』 숙종 8년(1682) 11월 16일.

23) 17세기 왜료를 하납하는 지역은 정확히 알 수 없다. 18세기 『부역실총』에 기재된 것에 따르면 거제, 경주, 고령, 고성, 기장, 김해, 남해, 대구, 동래, 사천, 선산, 양산, 영덕, 연일, 영해, 울산, 웅천, 의령, 인동, 장기, 진주, 진해, 창녕, 창원, 청하, 초계, 칠곡, 칠원, 하동, 함안, 현풍, 흥해 등 32읍으로 조선 전기와 동일하였다(문광균, 앞의 책, 2019, 98쪽). 공목과 공작미를 하납하는 대부분의 읍은 왜료 또한 하납하였다.

인 규모에 맞춘 하납읍의 지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동래의 왜관 수입 중 80% 이상이 이에 의존하였으며, 편성된 하납읍은 중앙재무기관에 상납해야 할 재원을 동래에 직접 하납하였기에 그 재원의 규모가 상납 재원을 상회하였다.²⁴⁾ 더불어 18세기 후반 경상도의 상납액은 20만 석 이상으로 중앙 재정의 근간이 되었지만, 도 내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약 29.72%로 타 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평안도의 경우에도 칙사의 접대, 사행의 파견 등 각종 외교비용과 국방상의 문제로 도 내에서 이전되는 재원의 비중이 33.7% 가량이지만, 그 규모가 경상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²⁵⁾ 이처럼 일련의 정비 과정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도 일본과의 무역 외교가 경상도민들의 조세를 기반으로 지탱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만 17세기 하납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납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논의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하납읍을 지정하였을 뿐 각 읍에 할당되는 수량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 경상감사에게 수량을 조절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읍마다 균형 있는 수취를 하도록 했다.²⁶⁾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언제나 경상감사의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를 주었다. 따라서 해마다 각 읍에 할당되는 하납 재원의 수량은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²⁷⁾ 감영-동래부-하납읍의 삼자 간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유발될 소지가 있었다.

이러한 제 규정의 미비성은 『新補受教輯錄』의 검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상납의 경우 조창 운영, 차사원 임명과 업무, 조군의 의무, 납부 기한, 운항 방법, 점검 규칙, 화수나 치폐 등의 부정행위 등 수십 개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²⁸⁾ 크게 상납의 조항이 하납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재원의 경로와 목적이 달랐기에 운영 방식의 차이는 분명하였다. 따라서 상납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모두 하납에 적용될 순 없었다. 1788년(정조 12)의 ‘하납미는 상납의 예를 따라야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²⁹⁾

그렇지만 하납과 관련한 규정은 단지 네 개의 조항이 확인된다. ① 왜관에서의 공작미 지급과 수표 발행 문제(1713년, 숙종 39), ② 하납재원의 미수 문제(1717년, 숙종 43), ③ 수령의 공작미 요리 문제(1732년, 영조 8),³⁰⁾ ④ 하납재원의 수량 보고 및 획급 문제(1732년, 영조 8)³¹⁾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네 개의 조항 또한 17세기 하납체계의 정비 과정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납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써 18세기 초반부터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1707년(숙종 33)에 경상도 각 읍에서 동래부로 하납하는 기한을 5월로 한정하는 것을 기하여,³²⁾ 18세기에 접어들면서 하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에서 기존의 체계 위에 제 규정들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련의 事目 및 節目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18세기 중반부터 하납과 관련한 사목 및 절목이 증가하면서 그 조항이 더욱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³³⁾ 대표적인 것이 1750년의 「東萊接倭節目」, 1782년의 「手標米防禁節目」, 1788년

24) 손병규, 앞의 책, 2008, 135쪽.

25) 권기중, 『『부역실총』에 기재된 지방재정의 위상』, 『역사와현실』 70, 한국역사연구회, 2008, 92~93쪽.

26) 『春官志』 卷2, 倭料米太及公木分徵郡邑.

27) 김영록, 앞의 논문, 2012.

28) 문광균, 앞의 책, 2019, 304~305쪽.

29) 『備邊司謄錄』 정조 12년(1788) 8월 18일.

30) ①, ②, ③의 조항에 대해서는 문광균, 앞의 책, 2019, 303~307쪽에 자세하다.

31) 『新補受教輯錄』 「戶典」, 雜令. “每年倭料米加減之數 歲末會案中懸錄 亦即報戶曹 如有不足 則當年劃給時充給 如有餘數 則當年劃給中計減 或有如前濫雜之弊 則都會官及本府該吏 嚴刑定配”

32) 『增正交隣志』 卷1, 公作米. 『邊例集要』 卷八, 下納諸節, 丁亥(1707).

의 「下納米改糾正新頒事目」이다.³⁴⁾ 절목의 증가는 중계무역의 쇠퇴로 인한 왜관 개시무역의 축소, 동래부의 재정 압박과 식리 활동의 확대,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관적인 통제와 무관하지 않다.³⁵⁾ 하납재원이 지역의 시장과 연결되면서 동래부의 재정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됨에 따라, 그리고 각 읍 단위에서도 시차를 이용한 하납재원의 운용이 재정 확보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불거진 것이다.

절목의 내용은 1746년의 『續大典』, 1785년의 『大典通編』, 1865년의 『大典會通』을 통해 법제화되기도 했다. 기존의 규정은 『신보수교집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속대전』에서는 ②의 조항에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령은 營門에서 杖을 치고, 色吏는 장 1백을 치고 징배한다’는 조항이 덧붙여졌으며,³⁶⁾ 『대전통편』에는 ‘공작미에 물을 섞어 불려서 下納한 자는 田稅和水律로 논죄한다’는 항목이 추가되었다.³⁷⁾ 절목에서 언급된 여러 조항 중 이 두 조항만이 명문화되었다는 사실은 무역외교비용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하납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문제는 18세기 전반에 걸쳐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설정된 사목과 절목의 조항 나아가 법전에 규정된 조항이 하납 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중 19세기까지 가장 큰 문제로 이어졌던 것이 하납기한의 미준수였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707년 동래부사 한배하의 건의에 따라 하납 기한을 5월로 정하였다. 하지만 17세기 말부터 이어져 온 하납재원의 防納,³⁸⁾ 18세기 초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하납재원의 환곡화로,³⁹⁾ 납부기한의 지체와 재원의 미수 등 하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것이 중앙정부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1746년의 『속대전』에서 하납기한의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1750년의 「東萊接倭節目」에서 5월의 하납기한이 재확인되었던 것이다.⁴⁰⁾ 나아가 1788년의 「下納米改糾正新頒事目」에서는 元下納은 4월로, 追下納은 5월까지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조항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각 읍에서 하납재원의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납부의 시기가 곧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무오년(1858) 가을걷이가 좋지 않아 기미년(1859) 봄에 쌀값이 뛰어올라 下米 1석의 값이 15~16냥에 이르렀다. 동래에 납부하는 下納米 4,350여 석 중에 3,010석을 本色으로 받는 대로 수송했는데, 남은 쌀 1,346석은 營門에선 關門을 보내어 申飭하고 동래부에서 문서를 보내 독촉하니 심하기가 星火보다 더하였다. 특별히 재해가 든 해의 民情을 진념하여 거두지 않은 쌀은 받기를 모두 그만두고 가을이 된 후에 새 쌀로 받기로 작정하고 시일을 끝였다.···(중략)···동래부에서 거두지 않은 쌀을 1석에 12냥씩 돈으로 만들 뜻으로 문서가 여러 번 오갔을 뿐 아니라 여러 번 만났다. 巡部가 府에 들어왔을 때 동래부에서 作錢을 청하는 이유를 다각도로 설명하고 本色으로 수송할 것을 기도하여 처결을 받았다. 다행히도 가을에 풍년이 들어 下米 1석의 값이 5~6냥에 불과하니 봄의 값과 비교하여 1석당 소득이 넉넉히 10냥이 되었으니 합계하면 고을 전체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 13,400여 냥에 이르렀다”⁴¹⁾

33) 양흥숙,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9, <표 7> 참고.

34) 『邊例集要』 卷八, 下納諸節, 庚午(1750). 金戊祚외 편역, 『東萊鄉廳鄉校考往錄』, 경성대학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1989. 「下納米改糾正新頒事目」(圭 18132). 절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철, 앞의 논문, 1993과 앞의 논문, 2011에 자세하다.

35) 김영록,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2, 135쪽.

36) 『續大典』, 「戶典」, 雜令. “倭料米公作米木犯手者 守令 論以贓律 過期不納 守令 營門決杖 色吏 杖一百定配”

37) 『大典通編』, 「戶典」, 雜令. “公作米和水下納者 以田稅和水律論”

38) 『邊例集要』 卷九, 開市, 庚申(1680)六月. 『暗行御史別單』, 肅宗 39年(1713) 慶尙右道暗行御史呂光周書啓. 『備邊司謄錄』 숙종 43年(1717) 9월 14일.

39) 『暗行御史別單』 肅宗 43年(1717) 慶尙左道暗行御史李明彦書啓.

40) 『邊例集要』 上, 卷之八, 下納諸節, 庚午(1750).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하납읍은 기한을 더 늦추려는 입장이었으며, 반대로 동래부는 문서의 왕복을 통해 독촉하는 입장이었다. 동래부 또한 하납재원이 지역 식리활동의 주요 재원으로 역할했기 때문이다.⁴²⁾ 위의 사례처럼 하납재원의 납부기한은 동래부-하납읍-경상감영 등 3자의 협의와 조정이 가능했기에 좀처럼 잘 지켜지지 못했다.⁴³⁾ 이와 함께 하납읍과 동래부의 관계에 따라 수령에 대한 고발이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⁴⁴⁾ 상납재원에 비해 중앙정부의 강제성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했기에 각 읍에서는 하납기한의 미준수를 예사로 여기기도 했던 것이다.⁴⁵⁾

하납기한의 준수를 위해 1788년의 「下納米改糾正新頒事目」에서는 하납읍의 수령이 직접 동래에 와서 하납재원을 납부하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더불어 하납미가 하납읍을 출발할 때 경상감영이 보고하고, 납부를 완료한 것은 동래부가 보고하도록 하였다.⁴⁶⁾ 이는 하납 과정에서 아전들의 포획과 공작미의 화수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하납은 수령의 주관하에 엄격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큰 실효는 없었다.⁴⁷⁾ 하납재원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읍 단위가 가지는 재정 운영의 지향점은 일치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지도 않아 이를 지키는 수령은 없었다.⁴⁸⁾

위의 납부 기한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납은 상납과 달리 호조와 선혜청 등 중앙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초기에 규정된 것과 같이 경상감사를 중심으로 동래부-하납읍-경상감영 등 3자의 논의와 조정에 의해 운영되면서 상납재원에 비해 자율적인 운용이 더욱 용이하였다. 따라서 하납재원을 환곡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많았다.⁴⁹⁾ 더불어 하납재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차를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등 읍 단위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상납과 달리 하납의 경우, 그 재원을 대체할만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무역비용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하납기한의 미준수가 지속적인 문제로 중앙정부에서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하납재원이 왜관에 입금되는 시기가 12월이기에 하납기한과의 시차가 컸고, 이러한 시차가 하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양상은 19세기에 접어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⁵⁰⁾

41)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110쪽.

42) 『備邊司謄錄』 영조 4년(1728) 7월 29일.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7월 25일.

43) 울산부의 경우 1837년에도 동래부와의 협의를 통해 약 2,000여 석의 하납미의 기한을 늦추어 9월에 납부하였다(『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96쪽).

44) 『備邊司謄錄』 숙종 43년(1717) 9월 14일. 정조 11년(1787) 10월 5일.

45) 『備邊司謄錄』 영조 13년(1737) 12월 27일. 『承政院日記』 정조 10년(1786) 4월 4일.

46) 김동철, 앞의 논문, 2011, 197쪽. 『承政院日記』 정조 12년(1788) 9월 8일.

47) 『承政院日記』 정조 13년(1789) 윤5월 26일.

48) 『承政院日記』 정조 23년(1799) 6월 9일.

49) 지방 각지의 창고에 보유된 환곡이 진흥곡으로 공급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각종 조세와 군역의 탕감을 동반하여 지방재정 운영상 다른 재원에서 재원 공급이 요구되었다(손병규, 앞의 책, 2008, 342~343쪽).

50) 『承政院日記』 철종 13년(1862) 6월 20일.

Ⅲ. 1862년 임술민란과 하남: 星州의 사례

1862년(철종 13) 단성과 진주에서 시작된 임술민란은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 원인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지목한 것처럼 ‘三政의 문란’으로 설명되는 당시의 부세제도의 폐단이었다.⁵¹⁾ 三政釐整廳의 설치와 「三政釐整節目」의 제정 등 정부가 행한 일련의 수습책에서 볼 수 있듯이 부세 부담으로 인한 문제는 농민봉기가 일어난 지역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문제였다. 이후 삼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⁵²⁾ 다만 임술민란이 각 읍 단위의 조세 행정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었기에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특정 부분의 부세가 더욱 문제시되기도 했다. 고산, 부안, 김제, 금구, 익산, 함평 등 전라도에서는 군역세 수취를 둘러싼 군정 운영의 문제가 직접적인 농민봉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⁵³⁾

하남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각 읍의 자율성 또는 자의성과 연결되면서 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19세기 중반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민들에게 하남의 부담이 항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주의 사례가 주목되는데, 성주는 경상도의 大邑 중 하나로 18세기 후반 동래로 이전하는 재원이 경주에 이어 가장 많은 곳이었다.⁵⁴⁾

성주에서는 임술민란 초기에 약 두 차례의 소요가 일어났다. 3월 26일 경 첫 소요가 일어났으며, 4월 초 한 차례의 소요가 더 있었다. 당시 안동에 거주하였던 김중휴의 일기를 통해 그 대강을 알 수 있는데, 그는 3월 11일과 12일에 단성과 진주에서 민란이 일어난 사실을 접한 후, 30일에 선산에서부터 민의 소요가 시작된 것을 들었다.⁵⁵⁾ 이후 4월 9일에 선산과 성주 지역에서 다시 민의 소요가 일어난 사실과 함께 성주 지역의 유력자인 이원조의 집 또한 피해를 입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⁵⁶⁾ 성주 지역의 소요는 4월 15일에 중앙정부에 보고되었다.⁵⁷⁾ 이후 안핵사로 파견된 박규수의 보고에 따르면 경상도 우도의 단성·함양·거창·성주·선산·상주·개령, 좌도의 울산·군위·비안·인동 등의 읍에서 소요가 일어났음이 확인된다.⁵⁸⁾ 그 후 성주는 5월 13일 선무사 이삼현의 효유로 소요가 진정되었다. 하지만 10월에 또 한 차례 소요가 일어나는 등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은 듯하다.⁵⁹⁾

1862년 5월과 6월 사이에 작성된 총 4개의 等狀을 통해 성주 임술민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⁶⁰⁾ 이는 크게 下納米, 統營需米의 운영과 관련한 폐단이었다.⁶¹⁾ 먼저 1862년의 「星州民

51) 배향섭, 「조선후기 민중운동 연구의 몇 가지 문제-임술민란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9, 역사비평사, 2008 참고.

52)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三政改革의 방향」,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48쪽.

53) 김경란, 「임술민란 전후 全羅道の 軍政운영과 殖利문제」,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92~93쪽.

54) 손병규, 앞의 책, 2008, 136쪽, <표2-7> 참고.

55) 『金重休日記』 2책, 壬戌年三月三十日. “善山等地人 亦如晉州民 皆縛頭以白巾 俱欲呈營下去云”

56) 『金重休日記』 2책, 壬戌年四月初九日. “且聞善山大小民作黨 非徒燒盡吏胥家 鄉內平日失和人之室亦盡燒 海平崔友秉奎之家 李承旨剛俊 沈進士坪城 金進士之室 亦爲灰燼 星州之民亦如是 李參判源祚家 幾乎犯危 懇乞幸免云”

57) 『承政院日記』 철종 13년 4월 15일.

58) 『承政院日記』 철종 13년 5월 22일.

59) 『金重休日記』 2책, 壬戌年十月十五日. “聞星州亂民更起 本府捕校下去云 若然則俱爲極變 淸風亦亂民等衝火而然歟”

60) 「星州民人金文玉等等狀」, 「星州民人朴之錫等等狀」 1, 「星州民人朴之錫等等狀」 2, 「星州大小民人等狀」(1862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61) 임술민란과 통영곡에 연관성에 대해서는 김현구, 「朝鮮後期 統制營의 財政運營에 관한 研究-統營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113~123쪽이 참고가 된다.

人金文玉等等狀」을 살펴보면 소요 이후 追下納, 統移轉, 公作錢의 폐해를 바로잡기로 하여, 선무사가 12개의 정식을 정했으나 虛文이 되었다고 하였다.⁶²⁾ 그리고 그 폐단 중 하나로 하납미의 과도한 수량을 들고 있다.

“대개 倭供으로 廳劃은 본디 정해진 수가 있는데, 營劃의 수는 1,500여 석으로 많습니다. 잡비까지 아울러 마련해야 합니다. 매 結당 납부하는 것이 다른 읍은 6~7斗인데, 星州는 올해 11斗 9刀 9勺 9勺입니다. 가령 木이 전보다 줄었다 하더라도 어찌 본읍만 홀로 많습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의혹을 풀 방법이 없어 고을의 소요가 이로 인해 갑절로 늘어났습니다.”⁶³⁾

위의 자료에서 廳劃은 영획급미로 공작미 재원이며, 營劃은 영획급미로 왜료미 재원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追下納과 연관된 영획급미의 부담이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왜관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年例八送使에 지급하는 왜료와 공무역재원 등과 別差倭와 표류왜인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왜료에 대한 명목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대동처치미로 추가적인 비용을 충당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 추하납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 선혜청에서는 하납 기한이 지난 6~7월 사이 관문을 보냈고 각 읍은 精米한 저치미가 부족하여 보통 환곡을 찢어 납부하면서 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다.⁶⁴⁾ 6~7斗의 하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들은 약 20여斗의 환곡을 가을에 갚아야 했던 것이다.⁶⁵⁾

19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저치미의 부족 현상과 환곡의 대급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으며,⁶⁶⁾ 성주의 경우 초계와 함께 하납재원의 환곡 운영과 虛留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지적되기도 했다.⁶⁷⁾ 1844년 당시 울산의 경우에도 추하납미의 환곡 출급 문제가 고질적인 폐해였던 만큼,⁶⁸⁾ 이는 다만 한정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민인들의 지적처럼 성주 또한 추하납으로 인한 폐해가 이 시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더하여 이들은 공목의 수량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영획급미의 수량이 과도하며, 이것이 소요의 원인이라 밝히고 있다. 그에 대한 경상감영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下納의 예에 쌀이 많으면 면포가 적고, 면포가 많으면 쌀이 적다. 민간에서는 이 규례를 모르고 단지 올해의 쌀이 많다고 말하는가. 올해 쌀이 많은 것은 전보다 면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는 감영에서 변통해 줄 수 없다.”⁶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납 수량의 배분은 일정한 규정이 없이 경상감사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었다. 따라서 면포와 쌀의 비율 또한 매년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경상감영에서 언급하

62) 「星州民人金文玉等等狀」(1862년, 철종 13). “所以有月前臚列之狀 而幸賴我巡相閣下曲加矜憫另思矯揉 追下納也 統移轉也 公作錢也…(중략)…最是結役煩重 姑無釐正之道 宣撫使十兩定式 反爲虛文 夷考其弊源”

63) 「星州民人金文玉等等狀」(1862년, 철종 13). “蓋倭供廳劃本有定數 而營劃之數爲一千五百餘石之多 而并雜費磨鍊 故每結所納 他邑則不過六七斗 而本州則今年爲十一斗九刀九合九勺 藉曰木邊之減前豈必本邑之獨多 愚民無以解惑 邑閭因此倍加”

64) 문광균, 앞의 책, 2019, 308~310쪽.

65) 『備邊司臚錄』 정조 11년(1787) 10월 5일. 『承政院日記』 정조 11년(1787) 10월 3일.

66) 『承政院日記』 순조 11년(1811) 3월 19일 ; 순조 16년(1816) 윤6월 20일 ; 순조 30년(1830) 8월 27일 ; 헌종 8년(1842) 9월 5일.

67) 『承政院日記』 순조 13년(1813) 8월 10일.

68)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102쪽.

69) 「星州民人金文玉等等狀」(1862년, 철종 13). “下納之例米多則米少 木多則米少 民間見不識此例 而但以今年米多爲言乎 所以今年米多者 因於木邊之減前也 此不可自營變通者”

는 것처럼 각 읍 차원뿐만 아니라 민에게도 혼동을 줄 여지가 많았다. 그리고 중앙기관의 재정 확보와 맞물려 각 읍의 하납 수량이 조정되기도 했다.⁷⁰⁾ 이를 볼 때 각 읍에 대한 균등한 분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1862년 성주의 영획급미 부담이 과도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다.

그렇지만 17세기 후반 성주의 하납 수량을 검토해보면 공작미나 공목의 수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영획급미는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¹⁾ 그리고 임술민란기를 전후하여 성주의 하납미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쌀의 비중이 높아 그 부담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⁷²⁾ 흥미로운 것은 아래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864년 성주의 영획급미가 10石 1升 6勺 8勺으로 현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감영의 답변과는 다르게 공작미나 공목의 수량은 변동이 없었다. 성주의 하납 부담이 감소할 수 있었던 재정적 이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임술민란의 결과로 그 부담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하지만 감영의 답변과는 달리 공목과 공작미의 배분 비율은 하납재원의 배분에 불균형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민들의 부담과도 직결한 문제였다. 각 물품의 풍흉과 물가 변동에 따라 그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각 물품의 환산율에 따라 거둘 수 있는 금액의 고의적인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⁷³⁾ 이후 상주·성주·선산·개령의 암행어사로 파견된 조병옥은 하납재원의 배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⁷⁴⁾

각 재원의 분배는 각 읍 단위의 독자적인 재정 운영 방식과 각 재원의 作錢과 결합되면서 민의 수탈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목 1필당 돈 4냥으로 대신 수세한 후 2~3냥으로 공목을 구매하여 防納함으로써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었다.⁷⁵⁾ 시가를 이용한 작전의 폐해는 각 읍 단위와 동래부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⁷⁶⁾ 1834년의 「慶尙道善山府一善鄉約節目」에서도 하납재원의 작전 문제를 읍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세우기도 했다. 이는 하납재원으로 각종 폐단을 야기하는 향리를 통제하려 한 의도였다.⁷⁷⁾

위의 等狀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잡비이다. 하납은 상납과 달리 정규부가세인 곡상, 가승, 역가, 인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⁷⁸⁾ 따라서 하납 과정에서 축난 수량에 대한 보상 또한 운감이 보충하는 폐해가 심하였다.⁷⁹⁾ 즉, 각 읍-동래부-왜관으로 이어지는 하납세물의 운송 과정에 구조적 결함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개인에게 전가되는 경향성이 컸다. 18세기 후반 정부의 중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던 운미감관의 포흠 문제는 이러한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⁸⁰⁾ 더불어 하납재원을 수송하는 잡비 또한 각 읍의 자율

70) 『承政院日記』 순조 13년(1813) 9월 5일.

71) 손병규, 앞의 책, 2008, 136쪽, <표2-7> 참고.

72) 『承政院日記』 철종 14년(1863) 3월 13일.

73) 예를 들면 전세 1石은 공작미 1石 9斗로 환산이 가능하다. 『嶠藩集略』 二, 別報, 下納米太加升勿施事(政府). “元稅米一石 作公木三疋 公木一疋 還作米八斗 以米計木 以木計米 則元稅米一石 變爲公作米一石九斗者也”

74) 『備邊司謄錄』 철종 13년(1862) 7월 12일.

75) 『嶠南日錄』 卷二十. “每年自某府 不以本色 而以錢代捧 假量一匹價爲四兩 則自某府收捧列邑之價 而更以二兩 或三兩 買木入給 每疋自有贏餘 故某府認作應行訓譯 看爲奇貨 遂成謬例 而年前有按道之臣 以此陳奏請以本色定式 其時則雖蒙許準 仍未遵行 民情之抑鬱 莫此爲甚”

76) 『承政院日記』 철종(1862) 13년 7월 12일 ; 고종 4년(1867) 7월 20일.

77) 「慶尙道善山府一善鄉約節目」(1834년) “一 下納作錢 實爲一邑切骨之弊 吏輩之許多奸竇 生民之橫罹 困厄 皆在於此 而今年變恠病根在是 今已矯正 此後如有 更起作錢 大小同聲 期於矯正爲齊”

78) 문광균, 앞의 책, 2019, 320쪽. 『承政院日記』 영조 3년(1727) 2월 20일.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嶠藩集略』 二, 別報, 下納米太加升勿施事(政府)).

79) 『備邊司謄錄』 정조 10년(1786) 3월 3일.

80) 김동철, 앞의 논문, 1993, 128~131쪽.

적인 운영에 기초하고 있었다. 따라서 읍 단위에서 잡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으며, 이는 오롯이 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각 읍의 운영 양상은 달랐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가 주목된다.

“본 읍에서 매년 하납하는 稅米가 늘 4,000석 내외였는데 해운하는 배와 사공의 값을 오로지 海戶가 내었다. 을미년(1775)부터 갑자기 없애니 민폐를 없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폐해가 발생하여 무궁하게 지속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창고를 기울이고 다방면으로 힘써 천여 緡를 마련하고 ‘下納防’이라고 이름하였다. 이자를 농기에 적당한 곳을 정하여 溫陽과 熊上 두 면에 나누어 주고 절목을 작성해 두었다. 원금은 낚두고 이자를 취하여 해마다 내려서 저 해호의 역을 대신하게 하여 이 무궁한 폐해를 혁파하고...”⁸¹⁾

잡비의 경우 하납재원과 함께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읍 차원에서 구획해야 했다. 해안에 접해있는 읍의 경우, 일반적으로 海戶에 이를 전가하는 경향이 컸다.⁸²⁾ 1813년 경주의 경우에도 하납선가 약 5~600냥이 두 포구의 海民이 담당함으로써 문제시되기도 했다.⁸³⁾ 그러한 측면에서 위의 사례는 편중된 부담을 조율하기 위한 시도로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울산의 ‘하납방’ 운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19세기에 이르면 하납 운송비가 다시 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다.⁸⁴⁾ 더불어 하납 과정에서 배가 침몰할 경우에도 그 부담은 민이 부담해야 했다.⁸⁵⁾ 이처럼 부가세 규정의 부재는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등 하납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것이었다.

결국 김문옥 등 성주 민인들의 청원에 따라 감영에서는 결당 2두의 하납미 납부를 가을로 미뤄주었다. 성주 민인들은 이후 또 한 번 청원을 통해 결당 2.5두를 추수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⁸⁶⁾ 하납미 납부의 기한 연장은 성주 민인들의 부세 부담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숨통을 트일 수 있었다.

<표-1> 임술민란기 성주의 하납재원과 수량

	항목	하납 수량	하납 완료량	미수량
1682년	公作米	2,931石 8斗 5升 1合 9勺		
	料米	212石 1斗 1升 34勺		
	營劃給米	1,533石 8斗 2升 1合 2勺		
		합계: 4,277石 2斗 8升 6合 5勺	3,436石 7斗 7升 8合 6勺	840石 10斗 7合 9勺
	公木	90同 6正	18同	72同 6正
	料太	51石 11斗 8升 1合 8勺	39石 12斗 7升 8合 9勺	11石 14斗 2合 9勺

81)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74쪽.

82) 『承政院日記』 경종 2년(1722) 12월 15일.

83) 『承政院日記』 순조 13년(1813) 8월 10일. “其一 慶州府下納米運納時 船價之收斂於兩浦 少不下五六百兩 海民不能奠居 田賦既是陸民之役 雖運納之節 宜使陸民當之 而偏責海民 實爲可冤 從今計其船價應入之數 通同分排於納米之陸海民事也 生穀在陸 運穀在海 此所以船運價之不徵於陸民 而徵於海民者也”

84) 『울산부선생안』, 울산박물관, 2012, 102쪽.

85) 『沈遠權日記』 上, 元鼎二年冬(1870), 三月二十五日. “邑下納 三百餘石 水潛 每戶一斗倉回授 自古所無之事”

86) 「星州民人朴之錫等等狀」 1(1862년, 철종 13). “甘中二斗外 更以二斗五刀退秋之意 特爲拔例 許施”

1863년	1862년 未收米	840石 10斗 7合 9勺		
	公作米	2,533石 12斗 1升 6合 4勺		
	料米	226石 4斗 9升 9合 3勺		
	營劃給米	1,350石 13斗 9升 2合		
		합계: 4,951石 11斗 1升 5合 6勺	3,107石 2斗 3合 5勺	1,844石 9斗 1升 2合 1勺
	1862년 未收公木	72同 6正		
	公木	81同 3正		
		합계: 153同 9正	93同 12正	59同 47正
1864년	1863년 未收米	1,844石 9斗 1升 2合 1勺		
	公作米	2,474石 14斗 1升 9合 3勺		
	料米	203石 13斗 7升 9合 3勺		
	營劃給米	10石 1升 6合 8勺		
		합계: 4,533石 7斗 2升 7合 5勺	2,609石 9斗 6升 3合 6勺	1,923石 12斗 6升 3合 9勺
	1863년 未收公木	59同 47正		
	公木	90同 35正		
		합계: 150同 32正	81同 10正	69同 22正
* 출전: 『各司謄錄』 12, 「東萊府啓錄」 4.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성주의 하납미 납부는 그 기한이 유예되었다. 임술민란기의 소요와 청원의 결과였다.⁸⁷⁾ 하납미와 통영곡으로 인한 성주의 고질적인 폐단은 1864년 즈음이 되어서야 수습된 것으로 보인다.⁸⁸⁾ 이 과정에서 1863년(철종 14) 성주 지역의 유력자인 이원조는 중앙에 「請減本州下納米疏」를 올리기도 했다.⁸⁹⁾ 그는 “성주의 하납재원 수량이 해마다 증가하며, 다른 읍에서는 돈으로 대납하거나 환곡을 찢어 납부하는데에 비해 성주만 모든 수량의 쌀을本色으로 납부하기에 그 부담이 크다. 6~7년 전에는 1결당 8~9두를 부담하였으나, 청에서 면포를 적게 쌀을 많이 내려주어 작년에는 1결당 12두였다”고 주장하였다.⁹⁰⁾ 이는 성주 민인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든 읍에 면포와 쌀을 반씩 배정하는 것을 영구한 항식으로 삼자고 건의하였다.⁹¹⁾ 이원조의 건의는 중앙정부에서 논의되었으나, 풍흉과 邑勢, 民情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하자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말았다.⁹²⁾

이처럼 성주 지역의 임술민란의 원인은 추하납, 면포와 쌀의 분배, 각종 부가세 등 하납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된 민의 부세 부담 증가였다. 하지만 하납의 납부기한 미준수를 비롯하여

87) 『承政院日記』 철종 13년(1862) 6월 25일.

88) 『承政院日記』 고종 1년(1864) 11월 17일.

89) 『承政院日記』 철종 14년(1863) 3월 15일.

90) 『凝窩先生文集』 卷五, 疏, 請減本州下納米疏. “以下納米木之逐年增加也 沿邑倭供米 或以錢代納 或給還改春 而獨本州以本色米全數收納…(중략)…凡干結役 比他邑倍蓰 而以其米木參半之故 六七年前一結所納 尚不過八九斗矣 夫何近年以來 該廳頒降 木少米多 至于昨年 爲一結十二斗”

91) 『凝窩先生文集』 卷五, 疏, 請減本州下納米疏. “從今以後 無論各沿邑 一以米木參半 永爲恒式”

92) 『承政院日記』 철종 14년(1863) 3월 15일.

하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1872년(고종 9)을 기점으로 일본과의 전통적인 교린 체제가 붕괴된 이후, 나아가 하납체계가 폐지될 때까지도 크게 해결되지 않았다.⁹³⁾

IV. 맺음말

조선 후기 경상도는 대일외교무역을 수행하기 위한 대규모의 재원을 동래부로 하납하였다. 17세기 전반에 걸쳐 공무역의 변화와 세제의 개편에 동반하면서 하납읍의 지정을 중심으로 하납체계가 정비되었다. 이는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무역외교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18세기에 접어들어 하납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하납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사목 및 절목이 제정되고 18세기 중반에는 그 조항이 세분화되었다. 하지만 법전에 새롭게 규정된 조항까지 하납 과정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중 19세기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납기한의 미준수였다. 납부 시기가 곧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하납재원은 동래부-하납읍-경상감영 등 3자의 협의와 조정에 의해 운영되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하납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성주 임술민란의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추하납, 하납 수량과 물품의 자의적 배분이 주요인이었다. 성주 인민들의 소요와 청원의 결과, 하납미 납부 기한이 유예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하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크게 해결되지 않았다. 상납과 달리 하납은 대일무역외교의 변동에 연동하면서 지방 재정의 독자적 운영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93) 『各司臚錄』 13, 「書契所報關錄」 1. 『嶠藩集略』 二, 別報, 下納米太加升勿施事(政府).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新補受教輯錄』,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賦役實總』, 『通文館志』, 『春官志』, 『增正交隣志』, 『邊例集要』, 『萬機要覽』, 『東萊府啓錄』, 『東萊鄉廳鄉校考往錄』, 『울산부선생안』, 『金重休日記』, 『凝窩先生文集』, 『嶠南日錄』, 『慶尙道善山府一善鄉約節目』, 『星州民人金文玉等等狀』, 『星州民人朴之錫等等狀』 1, 『星州民人朴之錫等等狀』 2, 『星州大小民人等狀』

문광균,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 연구』, 민속원, 2019.

손병규, 『조선왕조재정시스템의 재발견-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최완기, 『조선후기 선운업사 연구』, 일조각, 1989.

김경란, 「임술민란 전후 全羅道の 軍政운영과 殖利문제」,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김경란, 「조선후기 동래부의 공작미 운영실태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김동철, 「17·18世紀 對日 公貿易에서의 公作米 문제」, 『항도부산』 10,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93.

김동철, 「18세기 중엽 이후 대일무역의 변화와 節目의 제정」, 『동양한문학연구』 33, 동양한문학회, 2011.

김양수, 「조선후기 譯官의 중개무역과 倭館維持費」, 『歷史와 實學-大湖李隆助교수停年紀念號-』 32輯(下), 歷史實學會, 2007.

김영록,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公木」, 『한일관계사연구』 42, 한일관계사학회, 2012.

김영록, 「17~18세기 대일무역의 변화와 성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김현구, 「朝鮮後期 統制營의 財政運營에 관한 研究-統營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방기중, 「17·18세기 前半 金納租稅의 성립과 전개」, 『東方學志』 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배항섭, 「조선후기 민중운동 연구의 몇 가지 문제-임술민란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9, 역사비평사, 2008.

손병규, 「조선후기 국가재원의 지역적 분배-『부역실총』의 상하납 세물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0, 한국역사연구회, 2008.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三政改革의 방향」,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양진아, 「개항 전후 동래부 재정 운영의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양흥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오영교, 「朝鮮後期 地方官廳 財政과 殖利活動」, 『學林』 8,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1986.

이종봉, 「조선전기의 倭料」, 『역사와 경계』 77, 부산경남사학회, 2010.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의 展開過程과 그 性格에 관한 研究 - 1790~1870년대를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ルイス·ジェイムス, 「近世朝鮮人の日本觀-倭館における公貿易·接待の費用を例示として-」, 『年報朝鮮學』 2, 九州大學 朝鮮學研究所, 1992.

「조선 후기 경상도 下納의 몇 가지 문제」 토론문

양 흥 숙 (부산대학교)

이 발표문은 조선후기 田稅와 대동세를 기반으로 하는 下納米, 下納木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하납미가 조세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19세기 三政 혼란기에 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1862년 농민항쟁의 원인으로 하납미 문제가 등장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성주 지역의 等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1. 하납과 관련된 문제로 경상감사의 자의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납 양의 분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경상감사와 해당 지역의 지방관(하납읍 지방관)-동래부의 관계 속에서 하납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보수교집록』에 등장하는 하납 문제에는 이들 관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척결하려는 노력은 없습니까? 경상감영(사)의 자의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인지 통계, 실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납 문제, 하납 운영 문제로 인해 경상감영의 처벌 사례들이 있습니까?

또한 『속대전』에도 지방관 처벌 문제는 하납 양에 대한 것보다는 하납 지연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2. 하납 문제 중 하나는 납세 담당인 농민들에게 부가세(조세 자체의 부가뿐 아니라 유망으로 인한 조세의 집중 등)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하납미가 환곡 문제와 연결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납미 뿐 아니라 삼정 문란 시기의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중(발표문 7쪽) “성주 임술민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크게 하납미, 통영需米의 운영과 관련한 폐단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1862년 성주 농민항쟁과 관련된 논문을 보면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발표자께서도 ‘12개의 정식’은 언급하셨지만, 폐정개혁 내용(1차 봉기)을 보면 전세, 대동세, 부가세, 군정, 환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포흠, 허류, 잡세 증가 등의 이유입니다. 2차 농민봉기 때에도 결세 조정이 주 쟁점으로 보입니다.

발표문 8쪽을 보면 성주 지역의 문제로 하납미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나오는데, 米와 木의 분배 문제로 보입니다. 성주 지역 하납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1862년 당해 하납 양도 중요하지만 그 전년도와의 비교,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해볼 수는 없습니까?

3. 발표문 9쪽의 내용입니다. 1864년 성주의 영획급미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를 두고 발표자께서는 1862년 농민항쟁의 결과로 그 부담이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로 여겨집니다. 1862년 농민항쟁의 실제로 효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주 지역에서는 1864년 다시 농민항쟁이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4. 1862년 성주 농민항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납과 연결짓기 위해서는 하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성주 지역에 대입해 봐야할 듯합니다. 경상감영과 성주목과의 관계, 전체 조세 중에서의 하납 양, 하납 지연 사례, 하납 관련 부가세 등입니다. 특히 성주에서 동래까지의 하납 과정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하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동래부와 중앙 조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납기한 미준수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방재정 운영이라는 면에서 보면 하납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주 지역이라면 하납기한 미준수는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하납을 위한 운송비를 운송하는 민들에게 부가할 때에는 민들이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경상감영과 하납읍 사이의 관계 문제라면 전체 경상도 지역 간의 문제로 확장되게 됩니다. '하납'이라는 키워드로 각각의 문제들이 얹혀있는 것 같습니다. 각 문제들을 조금 구분하면서 글을 서술되면 하납에 대한 다각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또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시기마다 하납과 관련된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을 듯합니다.

5. 발표문 11쪽. 1862년 성주 농민항쟁 때 이원조가 올린 疎를 보면 성주 하납은 동전으로 대신 납부하는 형태가 없고 (하납 분량보다는) 유독 성주만이 本色, 현물 쌀을 그대로 올리는 것에 있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면포와 쌀의 분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조선 후기 울주 운흥사의 간행 목판 연구

김 동 현 (동의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운흥사의 연혁 및 목판 제작 배경
- III. 운흥사 목판 간행 체계
- IV. 결 론

I. 서론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에 소재한 운흥사(雲興寺)는 2만여 평의 경내에 59개 암자가 있었으며, 1천 명의 승려들이 수행했다고 전해진다.¹⁾ 한 때 통도사에 버금가는 대찰(大刹)이라고 할 만큼 규모가 컸으나 현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정족산 산기슭에 사찰 터만 존재한다. 운흥사는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개판(改版) 불서(佛書)를 간행하였는데, 당시 제작된 목판 수는 총 16종 676판이다.²⁾ 6백 여판의 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 노동력 등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 과정을 통해 당시 운흥사의 사격(寺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운흥사에 관한 연구는 인근에 위치한 통도사, 범어사 등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운흥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은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한 연구였다. 운흥사 목판의 후발문(後跋文)을 소개하였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 없거나, 운흥사의 각수승 연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당시 판각 양식을 위주로 한 연구였다. 운흥사에 관련된 여러 연구 중 하나만이 운흥사와 제작 목판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이 연구도 운흥사 목판 제작 참여자에 대한 분석이 특정 역할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만 분석하였다. 난외시주자에 대한 내용도 ‘○명 이상’이라는 모호한 수치를 제시, 목판 제작 참여자의 인원수도 정확하게 정리 분석되지 않았다. 또 각종 수치 및 용어 등에서도 오류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운흥사 및 목판에 관한 개요를 살필 수 있다는 연구사적 의의가 있지만, 목판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운흥사에 관한 연구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雲興寺址發掘調査報告書」, 『에맥출판사』, 2003, 184쪽.
2) 『雲興寺址發掘調査報告書』에 따르면 운흥사 목판이 16종 673판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천성산 운흥사사적』이 7판인데, 보고서에는 4판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수치의 오류로 판단된다. 따라서 운흥사 제작 목판은 총 16종 676판으로 집계된다.
3) 함선오, 「울주 천성산 운흥사 개판목판본 자료 소개」, 『불교미술사학』 2, 2004, 박도화, 「운흥사 각수 연희의 판각 양식」 『강좌 미술사』 Vol.26 NO.2, 2006, 배현숙, 「울주 운흥사의 불경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2009.

오류가 있어 운흥사 목판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목판의 종합적 분석 또는 각 분야별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 또한 문헌 사료의 부재, 폐사 시기가 다소 불명확한 점 등으로 인해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가 운흥사에 관한 자료를 접하면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운흥사에서 간행된 목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운흥사에서 간행된 목판을 단순히 서지사항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별 참여자와 개인 인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참여 횟수와 맡은 역할을 분석하여 운흥사 목판 간행을 주도한 인물과 그들의 역할을 파악해 운흥사 목판 간행체계를 밝혀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운흥사와 제작 목판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II. 운흥사의 연혁 및 목판 제작 배경

1. 운흥사의 연혁

운흥사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반계길 262-12 일대에 터가 남아있다. 웅촌은 동쪽으로는 울산, 서북쪽으로는 언양, 서쪽으로는 양산과 통도사, 남쪽으로는 기장, 동래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인근 지역들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교통로로서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특히 고려시대 금주도(金州道)⁴⁾, 조선시대 황산도(黃山道)⁵⁾의 거점역 중 하나인 간곡역(肝谷驛)⁶⁾이 설치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웅촌은 예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적합하였고, 울산·언양·양산 등 주요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교류하기에 적합하였다. 사람의 교류는 경제·문화적 교류를 동반하므로 각종 자원이 풍부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운흥사는 일찍이 창건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운흥사는 신라 진평왕(眞平王, 579~631) 연간에 원효(元曉)가 창건했다고 전해지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운흥사가 소재한 울주군 웅촌면이 신라 수도였던 경주에서 거리상으로 멀지 않다는 점, 울산 및 언양 등과 인접해 있다는 점,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찍부터 창건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⁷⁾

운흥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후 17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목판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량의 자기류가 출토되는데 그 제작시기와 석조물이 축조된 시기가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⁸⁾ 이 시기 운흥사에서 목판 제작, 각종 석조물의 축조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당시 사세가 크게 번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찰에서 목판을 제

4) 『고려사』 권82, 지 권36 병2 참역 금주도.

5)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6) 간곡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일대로 추측한다.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 접속일 2020.12.12

7) 운흥사에서 지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운흥사에서는 통일신라~조선후기의 유물이 지속적으로 출토되었다. 각 시대별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고려 시대는 청자, 조선시대에는 막새와 백자류가 주로 출토되었다.

8) 운흥사에서 출토된 유물 중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유물은 총 30점이다. 출토유물 중에서 자기류가 총 15종, 막새류 7종, 석조물 8개가 출토 확인되었다. 자기류 중 11종은 17세기, 4종은 19세기에 각각 제작되었다. 막새는 암막새 5종, 수막새 2종이 각각 출토되었는데 제작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막새가 4종이었다. 8개의 석조물 중 4개의 수조와 2개의 석교(石橋)가 영조(英祖) 연간에 제작되었다.

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운흥사에서 출토된 조선후기 유물과 목판 제작 시가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조선후기 운흥사는 상당한 사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운흥사는 고종(高宗) 대에 접어들면서 폐사되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고종 1년(1864)에 간행된 『대동지지』에는 기록⁹⁾이 존재하나, 고종 8년(1871)에 간행된 『영남읍지』부터 “지금은 없다”¹⁰⁾라고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운흥사는 1864~1871년 사이에 폐사된 것으로 추측된다. 폐사된 이유에 대해서 통도사에서 2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하나는 화재로 인한 전소(全燒)설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한 지역(紙役)으로 인해 승려들이 점차 줄어들어 폐사되었다는 설이다.¹¹⁾ 그러나 폐사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 폐사 시기와 그 배경은 알 수 없다.

2. 운흥사 목판 제작 배경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란을 수습함과 동시에, 민심도 안정시켜야 했다. 전쟁으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와 인구의 급감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임진왜란 이전의 전결(田結)은 약 170만 결이었으나,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34년(1601)에는 30만결로 급감하였다. 이후 광해군 3년(1611)에는 54만결, 인조 13년(1635)에는 89만결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다. 여기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또한 17세기 초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는 현종 11년(1670)과 12년(1671)에 일어난 경신대기근(庚辛大飢饉)으로 정점을 찍는다. 따라서 17세기 조선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흥사는 현종 9년(1668)에 『묘법연화경』(이하 『법화경』), 『불설 대보부모은중경』(이하 『은중경』)을 간행하게 된다. 17세기 혼란 시기에 운흥사는 어떻게 목판을 제작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으로 지리·사회·경제적 변화, 임진왜란 이후 변화된 불교계에 대한 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운흥사는 웅촌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은 목판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웅촌은 양산, 울산, 언양, 동래, 기장 등과 인접하여 인근 지역과의 교류가 수월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점은 목판 제작에 필요한 도구 및 인적 자원 등을 구하기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후 불교계에 대한 정책의 변화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휴정(休靜), 유정(惟政) 등을 필두로 한 승군이 큰 역할을 하자 불교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된다. 조선전기에는 성리학적 이념에 의해 불교를 배제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불교계는 이전 시기보다 인식이 다소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찰에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승려가 되는 규제를 폐지한 것은 인적 자원의 확보가 쉬워졌을 것이다.

셋째, 숙종 28년(1702)은 운흥사의 목판 제작에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였다. 당시 운흥사 승려의 수는 총 138명과 20명의 민간인 호주와 그 가족을 합하면 운흥사의 전체 인구는 200여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²⁾ 운흥사는 현종 9년(1668)~숙종 23년(1697) 사이에 가장

9) “山川 - 園寂山西六十里梁山界連峯壘洞府深邃雲興寺” 『大東地志』,蔚山郡, 1864

10) “佛宇 - 雲興寺在園寂山今無” 『嶺南邑誌』, 1871

11) 최두헌, 「양산 통도사의 출판활동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43, 2016, 95쪽

활발하게 목판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숙종 28년(1702)에 나타난 평균 나이를 역으로 추산해 보면 운흥사에서 목판을 제작할 당시에는 상좌승과 호주의 나이가 상당히 젊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속된 민간호(民間戶)들이 목판 제작이 필요한 물품 조달에 노동력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목판을 제작하는데 다수의 젊은 승려와 민간인이 거주한다는 점은 운흥사의 활발한 종교 활동과 경제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운흥사에서는 연희(演熙)와 학훈(學薰)이라는 승려를 구심점으로 목판 제작을 주도하였다. 연희와 학훈은 『법화경』과 『은중경』의 제작을 시작으로 운흥사에서 제작한 대다수의 목판에 각수승과 화주로 참여했다. 연희는 『은중경』을 간행한 다음 해에 덕유산에서 판목을 구해와 사람들 몰래 원적산(園寂山)으로 들어가 3년간 홀로 판각한 끝에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이하 『능엄경』)을 완성했다.¹³⁾ 연희와 학훈과 같은 발원승을 중심이 되었기에 개판불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찰에서 불서를 간행하기 위해서는 발원, 시주, 연화승, 물자 4요소가 갖추어야 가능하다.¹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흥사는 17세기 중반 이후 목판 제작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운흥사에서는 16종 676판에 달하는 목판을 제작할 수 있었다.

Ⅲ. 운흥사 목판 간행 체계

1. 운흥사 목판 현황

1) 주제별 분석¹⁵⁾

<표-1> 운흥사 개간 목판 현황

목판명	판수	간행연도	後跋文有無	참여인원(명)
『불설대보부모은중경』	16	1668	有	3
『묘법연화경』	31		有	2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155	1672	有	14
『권수정업왕생첩경도』 (해수관음상 뒷면)	1	1678	有	17
『해수관음상』				6

12) 숙종 28년(1702)에 운흥사의 호수(戶數)는 112명, 승호(僧戶)의 호주수는 93명, 평균나이 42.9세이고, 상좌수는 45명, 평균나이는 22.9세이다. 민간호는 남성 20명이며 평균나이는 45.9세이다. 이종서 「조선후기 울산 지역 불교사찰의 호구와 사세의 변동」, 『부산경남사학회』, 96, 2015, 173~174쪽

13) “先刻法華恩重兩經越明年又入德宥數取板沿江而不入圓寂山靜密處結茆而住熙公於是跡不○俗清齋勵節立五年死限灑掃焚香手執神刀於○窓淨案兀然而坐自卯而作方酉即止日以此爲恒式 精刻楞嚴十卷曲盡心力于三年告成 越戊午秋三入德宥取梓數百板而來刻金剛起信二種了義經論 以報父母劬勞之德噫若熙熏兩勝士者非徒孝格目連必得首楞嚴畢竟堅固大定眞三昧者歟不如是則前後兩役相繼十年兩士之心切切惻惻者較若畫一也哉於是兩士盡傾囊橐共辦紙地印出法華恩重楞嚴經數百件廣施名山遠近衲子以爲不滿其意隨其板本所在出入兩湖印出四教四集傳燈拈頌華嚴十地等禪教眞文百餘件普施一時韻釋焉” 운흥사 판 『금강경』(하) 발문.

14) 배현숙, 「울주 운흥사의 불경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58쪽.

15) 이하 서지사항은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 문화재-2016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조계종출판사, 2017을 참고하여 작성함.

(권수정업왕생첩경도 뒷면)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	127	1679	有	上卷	49
				下卷	85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16	1680	有	27	
『고봉화상선요』	27	1681	有	46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38		有	56	
『대혜보각선사서』	59		有	50	
『대승기신론소』	80		有	上卷	33
				下卷	39
『선원제전집도서』	37		有	67	
『선종영가집』	48	1684	有	55	
『벽송당야노행록』	19	1690	有	25	
『운홍사불량답모연기』	5	1697	無	.	
『천성산운홍사사적』	7		有	88	
『모운대노행적』 ¹⁶⁾	10	1709	有	3	
16종	676				

사찰에서 목판을 제작하는 동기는 크게 4가지로 왕실의 안녕, 간행 참여자의 소원성취, 후학의 경전 사용, 경전의 유포와 사찰의 위상 제고 등이 있다.¹⁷⁾ 사찰에서 제작한 목판을 주제별로 분류했을 때, 제작한 불서의 성격을 통해 해당 사찰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찰의 경우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경전을 간행하였다. 이는 사찰의 종파(宗派) 또는 사격(寺格) 및 내력에 따라 특정 경전이 간행되기보다는 불교경전의 실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이 우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사찰에서 간행한 목판의 주제별 분류는 당시 사찰의 성격과 출판 동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¹⁸⁾

<표-2> 운홍사 목판 주제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종수	비율 (%)	경전명
經典部	般若經類	1	6.2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
	法華經類	1	6.2	『묘법연화경』
	經集類	1	6.2	『불설대보부모은중경』
	密敎經類	1	6.2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華嚴經類	1	6.2	『모운대노행적』
宗義部	禪宗類	6	37.7	『고봉화상선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대혜보각선사서』, 『대승기신론소』, 『선원제전집도서』, 『선종영가집』
	禮懺類	1	6.2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史傳部	寺誌類	2	12.7	『운홍사불량답모연기』, 『운홍사사적』
文集部	文集類	1	6.2	『벽송당야노행록』
變相圖	變相圖	1	6.2	『권수정업왕생첩경도』, 『해수관음상』
합계	.	16종	100	-

16) 운홍사에 제작된 목판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된 목판이 『모운대노행적』인데 실제로 마지막 제작 목판인지, 운홍사가 폐사되면서 『모운대노행적』 이후에 제작된 목판이 소실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7) 김지완·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71, 2017, 283쪽.

18) 임기영, 「은진 쌍계사 간행 불서 연구」 『서지학연구』 78, 2019, 206쪽.

운흥사에서는 5종의 경전부(31%), 6종(37.7%)의 선종류 경전의 목판을 간행하였다. 경전부와 선종류를 합한 11종(68.7%) 중 사집(四集)에 해당하는 경전을 모두 제작하였고, 사교(四敎)에 해당하는 경전을 3종 제작하였다. 이를 제외한 남은 5종은 사찰의 일상 의식에 대한 목판이다. 이를 보았을 때, 운흥사는 승려에 대한 교육을 위한 경전을 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운흥사 개관 불서의 주요 목표는 승려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운흥사 목판 간행체계와 참여자

1) 목판 간행체계

목판 제작은 단순히 판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시주하는 사람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각수(刻手), 화주(化主), 교정(校正), 집강(執綱), 시주(施主) 등 세분화된 역할이 있으며, 체계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운흥사 뿐만 다른 사찰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운흥사에서 제작한 목판의 발문에는 목판 제작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과 역할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운흥사에서 제작된 목판의 후발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상)』(이하 『금강경』)

역할	이름	합계(명)
大德	義林, 法眼, 普濟, 印罔, 贊英, 檀湜, 惠文	7
浮板施主	智日比丘, 印天比丘, 魯永民兩主	3
供養施主	李終山保休, 亡父李於屯, 亡母終月, 金士男兩主, 李春鶴兩主, 善擇比丘	6
執綱	信淨	1
直舍	粹元	1
首僧	隱惠	1
書記	普仁	1
三寶	釋奇	1
刻手秩	覺雲, 朴弘迪, 神日, 靈贊, 雪熏, 以訥, 元淡, 鄭令奉, 順根, 文遠, 普彥, 法行, 思訖, 能信, 弘性, 平訖, 學贊, 靈擇, 德元, 俊昌, 已擇, 演熙	22
木手	處衍	1
供養主	思現, 曇式	2
負木	玉坦	1
別座	尙玄	1
化主	學熏	1
총 합계		49

<표-3>은 운흥사에서 제작된 『금강경(상)』의 후발문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대덕, 시주, 집강, 수승, 삼보, 각수질, 화주 등 여러 역할이 참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를 소개한 것은 운흥사에서 제작된 목판이 전반적으로 <표-3>의 간행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

속적으로 목판 제작에 참여한 사람도 있으며, 특히 운흥사 목판 제작을 주도한 사람도 있다. 운흥사에서 제작된 총 16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운흥사에서 제작된 각 경전 권말에는 후발문, 간기, 참여자가 기록되어있다.¹⁹⁾ 둘째, 목판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각수, 화주, 부목 등의 실무자와 집강, 수승, 대덕, 삼보 등 보조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위주로 목판 제작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운흥사의 목판 간행체계는 같은 시기에 목판을 제작하였던 다른 사찰의 목판 제작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간행체계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간행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²⁰⁾

2) 목판 제작 참여자 분석

운흥사 목판 제작 참여자 중 9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9명, 5~8회 참여자가 32명, 3~4회 참여자가 31명으로 총 72명이다. 참여 횟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로 역할군의 경향, 특징 등을 참여자와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간을 나누는데 9회 이상 참여자는 그 역할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어 따로 분류하였다. 5~8회와 4회 이하 참여자는 참여 인원수와 각수로 참여한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운흥사 목판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인물은 연희(演熙)와 학훈(學薰)이라는 승려이다. 사실상이 둘이 운흥사의 개판불서를 주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연희와 학훈이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한 『선종영가집』 이후로 운흥사의 목판 제작이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희는 총 16회 참여하였으며, 운흥사 목판 중 『법화경』을 화주로, 『은중경』, 『능엄경』, 『금강경(하)』, 『선종영가집』, 『벽송당야노행록』(이하 이로행록)에서는 장두각수로, 『권수정업왕생첩경도』(이하 『첩경도』), 『해수관음상』(이하 『관음상』)은 직접 판각하였고, 『금강경(상)』,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이하 『묵언작법』), 『고봉화상선요』(이하 『선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이하 『절요』), 『대혜보각선사서』(이하 서장), 『대승기신론소(상, 하)』(이하 『기신론』), 『선원제전집도서』(이하 『도서』)에서는 모두 각자(刻字), 각수(刻手) 등으로 참여하였다. 연희는 운흥사에서 각수승으로 목판 제작을 이끌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희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한 예로 1682년(숙종 8년)에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간행된 『능엄경』의 변상도에 ‘공주학훈(供主學薰) 각공연희(刻功演熙)’라 새겨져 있다. 울산과 평안도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동명이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연희가 활동하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 공양주가 학훈이었던 점을 보았을 때 동일인임이 확실하다.²¹⁾ 정시한이 쓴 『산중일기』²²⁾에도 등장하여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훈은 총 14회 등장하며 연희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연희가 각수승으로서 목판 제작에 참여하였다면 학훈은 화주(化主)로서 목판 제작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은중경』에서 자비공궐(自費供饋)로, 『도서』, 『선요』, 『절요』에서 내왕(來往)으로 참여하였고 『법화경』, 『능엄경』, 『첩경도』, 『관음상』, 『금강경(상, 하)』, 『묵언작법』, 『기신론(상, 하)』, 『선종영가집』에서 화주로 참여하였다. 연희가 판각을 주도하였다면 학훈은 목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주도하였다.

능신(能信)은 『이로행록』, 『천성산운흥사사적』(이하 『운흥사사적』), 『모운대노행적』에 공덕각

19) 『운흥사불량담모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20) 통도사, 용장사(龍泉寺), 석왕사(釋王寺), 쌍계사(雙溪寺)에서 제작한 목판의 후발문에 나타나는 제작체계와 운흥사를 비교해보니 매우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2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상]』 예맥, 2011, 1195쪽.

22) 정시한 『山中日記 影印本』,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2012

(功德刻)으로, 『금강경(상)』, 『선요』, 『서장』, 『기신론(상, 하)』, 『도서』, 『선종영가집』에서는 모두 각자, 각수로 총 10회 참여하였다. 또한 연희가 참여하지 않은 『운흥사사적』, 『모운대노행적』에 유일한 각수승으로 참여한다. 이는 능신이 연희 이후²³⁾ 운흥사 목판 제작의 각수승으로 판각을 주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정(信淨)은 『첩경도』에서 삼강(三剛)으로, 『금강경(상, 하)』, 『목언작법』, 『절요』, 『서장』, 『기신론(상, 하)』, 『도서』에서 집강(執綱)으로, 『운흥사사적』에서 전화상(前和尚)으로 총 10회 참여하였다. 신정은 목판 제작에 실무자가 아닌 목판 제작에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할 것을 알 수 있다.

인경(印岡)은 『금강경(상, 하)』, 『목언작법』, 『기신론(하)』, 『이로행록』에서 대덕(大德), 또는 산중대덕(山中大德)으로, 『선요』, 『절요』, 『서장』, 『도서』에서 교정(校正)으로 총 9회 참여하였다. 『도서』에서는 산중대덕과 교정 2가지 역할을 병행하였다. 인경은 대덕이라는 지위에 맞게 사집과(四集科)의 경전을 모두 교정할 정도로 경전지식에 해박한 인물로 생각된다. 옥탄(玉坦)은 『금강경(상)』, 『기신론(상)』에서 부목(負木)으로, 『목언작법』, 『선요』, 『절요』, 『서장』, 『기신론(하)』, 『도서』, 『선종영가집』에서 모두 공양, 공양주로 총 9회 참여하였다. 옥탄은 운흥사 목판에 필요한 자금, 목재 등을 모으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9회 이상 참여자들은 운흥사 목판 제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자 각자 맡은 역할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맡은 역할도 각수, 화주, 집강, 교정, 대덕, 공양으로 목판 제작에 가장 필수적인 역할들이다. 운흥사 목판 간행체계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운흥사 내부에서 목판을 제작할 때 역할 분담이 명확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5~8회 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으로 9회 이상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운흥사 목판을 제작을 이끌어간 인물들이다.

초인(楚仁)은 『금강경(하)』에서는 산중대덕, 『목언작법』에서는 양위불전(兩位佛殿)으로 『선요』, 『절요』, 『서장』, 『도서』에서는 화주 또는 대화주로, 『선종영가집』에서는 분판각인권화주(分板刻引勸化主)로 역할을 병행하였고, 『기신론(하)』에서는 지전(持殿)²⁴⁾으로 총 8회 참여하였다. 초인은 학훈과 더불어 운흥사에 단 2명뿐인 화주다.²⁵⁾ 또한 학훈이 사집과에는 화주가 아닌 다른 역할로 참여하면서, 초인이 사집과에 화주로 참여하였다. 또한 운흥사에서 각수승이 아님에도 각수로 참여한 사례는 총 3번인데 초인이 그중 한사람이다.

광명(廣明)은 『첩경도』에 연화질(緣化秩)로 『절요』에서는 각자(刻字)로, 『금강경(하)』, 『선요』, 『절요』, 『기신론(하)』에서는 지전(持殿)으로 『목언작법』에서는 양위불전(兩位佛殿)으로 총 7회 참여하였다. 광명은 지전의 역할이 주된 역할이기는 하나 각수나 연화질로서도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전은 운흥사에서 총 9명이 참여하는데 광명이 4회로 가장 많이 역임하였다. 또한 각수승이 아님에도 각수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천찬(天贊)은 『선요』, 『서장』, 『이로행록』에는 시주로, 『서장』, 『도서』에서는 대시주겸별좌(大施主兼別座)로 참여하였고, 『기신론(하)』에서는 서기(書記)로, 『운흥사사적』에서는 전화상(前和尚)으로 총 7회 참여한다. 천찬은 주로 별좌로서 목판 제작 참여자들의 음식을 담당하거나 시주를 하는 등 목판 제작에 필요한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파악된다. 수원(守

23) 운흥사판 『능엄경』의 후발문에 연희가 늦은 나이에 출가했다고 새겨져 있고, 『이로행록』 이후 7년만에 『운흥사사적』이 제작되었고, 『운흥사사적』 이후 12년 만에 『모운대노행적』이 제작되었다. 제작기간의 간격이 길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연희는 『이로행록』을 마지막으로 제작한 뒤 목판 제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24) 지전(知殿)이 옳은 표현이나 여기서는 운흥사 목판에 기록된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자 지전(持殿)이라고 서술함

25) 연희가 『법화경』에 화주로서 참여하지만 각수승이 주요 역할이기에 제외하였다.

元)은 『목언작법』에서 직세(直歲)로, 『절요』, 『서장』, 『도서』에서는 직사(直舍)²⁶⁾로, 『선종영가집』에서는 분판각자질(分板刻字秩)과 병술정해생갑(丙戌丁亥生甲)으로, 『운흥사사적』에서는 연판(鍊板)으로 참여한다. 수원은 잡무를 맡는 직세부터 시작해 곳집의 출납을 맡는 직사에 이어 갑계와 연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역임한다. 운흥사에서 3회 이상 목판 제작에 참여한 사람 중 2명이 갑계에 참여하는데 수원이 그 중 1명이다. 또한 각수승이 아님에도 각수로 참여하였다.

은혜(隱惠)는 『금강경(상)』, 『절요』, 『서장』, 『기신론(상)』, 『도서』에 모두 수승(首僧)으로 총 5회 참여하였다. 운흥사에서는 총 8명이 수승으로 참여하는데 은혜를 제외하면 모두 1회만 참여하였다. 수승이라는 역할을 보았을 때 은혜는 당시 운흥사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생각된다. 보인(普仁)은 『금강경(상)』, 『절요』, 『서장』, 『기신론(상)』, 『도서』에 모두 서기(書記)²⁷⁾로 총 5회 참여하였다. 운흥사에서 총 8명이 서기로 참여하였는데 이 역시 보인을 제외하면 모두 1회만 참여하였다.

5~8회 참여한 자들은 총 32명으로 그중 6명 정도를 소개하였다. 이 구간에서는 각수승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양과 시주가 7명, 화주가 1명이며, 별좌, 지전, 직사 등의 보조역할이 6명, 대덕 4명, 수승이 1명이다. 목판 제작 실무자가 총 21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지전(持殿)은 광명만, 수승(首僧)은 은혜만 수행하는 식으로 보조역할에서는 1명이 하나의 역할로만 참여하였다.

다음은 4회 이하 참여자들이다. 4회 참여자들은 총 17명으로 각수승이 5명인데 도감(都監)과 수승(首僧)을 겸해서 참여한 인물도 있다. 공양 및 시주자로 참여한 사람이 6명, 보조업무로 참여한 사람이 6명이다. 3회 참여자들은 총 15명으로 각수승은 2명이고 공양 및 시주자가 7명, 보조업무를 맡는 사람은 6명이다. 이를 보았을 때, 5회 이상 참여자는 각수승의 비중이 높고, 4회 이하 참여자들은 공양 및 시주, 보조업무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회 이하 각수승 참여자 중 1명을 제외²⁸⁾하고 모두 1681년에 제작된 5개의 목판²⁹⁾부터 등장한다. 1681년이 운흥사에서 가장 많은 목판이 제작된 시기임을 감안했을 때, 이들은 운흥사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였거나, 새로운 각수승으로 발탁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민간에서도 각수로 참여하는데 이들도 1681년에 제작된 목판에 참여한다. 1681년에는 5종의 목판을 간행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운흥사의 사세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31명은 참여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운흥사 목판 제작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양 및 시주 참여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직사, 별좌, 지전 등 보조업무 7명, 각수 7명, 연판(鍊板)이 1명이다. 5회 이상 참여자들과 다르게 공양, 시주, 보조업무 참여자가 각수승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들은 목판 제작의 실무자가 아닌 부차적인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 목판 제작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6) 운흥사 목판에는 직사(直舍)로 판각되어 있으며, 이는 직사(直司)의 이칭으로 생각된다.

27) 사찰의 사무를 처리하는 소임과 판목에 새길 판목용 정서본을 쓰는 사람의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운흥사에서는 어떠한 역할로 참여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28) 3회 참여자 중 법행(法行)이 금강경(상)에 각수질(刻手秩)로 참여하였다.

29) 『고봉화상선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대혜보각선사서』, 『대승기신론』, 『선원제전집도서』가 1681년에 제작되었다.

<표-4> 역할별 참여 현황

	9회 이상	5~8회	3~4회	합계(명)
刻手	演熙, 能信, 元淡	文远, 德元, 順根, 弘性, 平訖(屹), 灵擇, 以訥, 学贊, 俊昌, 覺雲, 普彦, 神日	信宗., 戒敏, 尹戒还, 應清, 鄭宗漢, 處連, 法行	22(21)
化主	学熏	楚仁		2
供養	玉坦	戒眼, 李終山, 印天	曇印, 玉岑, 曇远, 稔眼, 金士男兩主, 李春鶴兩主	10
鍊板			最贊	1
施主		慈允, 天心, 智日	魯永民兩主, 学琳(林), 彦明, 灵寬, 太圭	8
大德	印罔	普濟, 檀湜, 義林, 贊英	法眼, 太應, 惠文, 一寬,	9
校正	印罔			1(0)
執綱	信淨		太英	2
別座		天贊	尙玄	2
直舍		守元	粹元	2
首僧		隱惠		1
持殿		廣明		1
僧統/住持			處明	1
書記		普仁		1
都監			信宗	1(0)
기타		坦修, 處衍, 神益	一清, 勝惠, 正寬, 省熏	7
총 합계(명)				69

비고1 : 印罔과 信宗은 2가지 역할에 동일한 횟수 또는 2가지 역할로 하나의 목판에 참여하여 굵은색으로 별도 표기

비고2 : '기타'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의 역할만 맡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두루 역임하여 주된 역할이 파악하기 어려워 따로 분류

IV.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울주 운흥사의 연혁, 목판 그리고 목판 간행체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운흥사의 창건과 목판 제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운흥사는 통일신라에 창건되었고 11세기~조선후기에 이르는 유물이 지속적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오랜기간 사찰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운흥사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법화경』, 『은중경』의 제작을 시작으로 총 16종 676판의 목판을 간행한다. 조선후기 불안정한 사회상황 속에서도 목판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운흥사에서 목판제작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Ⅲ장에서는 운흥사 목판 제작 배경과 참여자를 분석하여 당시 운흥사 목판 제작체계를 알아보았다. 운흥사 목판 제작의 주요 참여자들은 5회 이상 참여자들로 총 39명이며, 4회 이하 참여자들은 31명이다. 이들이 운흥사 목판 제작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 횟수별로 구간을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5회 이상 참여자 중에는 각수승의 비

중이 높았고, 4회 이하 참여자는 공양, 시주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후기 운흥사의 목판 제작체계는 매우 조직적이었으며, 이를 주도하는 인물도 있었다. 목판 제작에 필요한 재정은 시주나 『선종영가집』의 사례처럼 계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목판 제작 당시 운흥사는 젊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목판 제작에 필요한 노동력도 충분했을 것이다. 사찰에서 대규모 목판 제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자립성이 요구된다. 운흥사에서 제작된 676판의 목판은 당시 운흥사의 사세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운흥사에서 제작된 목판과 제작 참여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재 운흥사에 관련된 자료로는 발굴조사보고서와 소량의 문헌 기록만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진행하는 연구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번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慶尙道續撰地理誌』, 『高麗史』, 『高麗史節要』, 『嶠南誌』, 『大東地志』, 『山中日記』,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嶺南邑誌』, 『朝鮮王朝實錄』, 『清臺日記』

2.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상]』 예맥, 2011.

불교신문사,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불교시대사, 1991.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 문화재-2016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조계종출판사, 2017.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한국학문헌연구소, 『통도사지(通度寺誌)』, 아세아문화사, 1983.

3. 발굴조사보고서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雲興寺址發掘調査報告書』, 예맥출판사, 200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雲興寺木板資料集』, 예맥출판사, 2003

4. 논문

김지완·남권희, 「17세기 태인 용장사 간행 불서의 서지적 분석」 『서지학연구』 71, 2017.

배현숙, 「울주 운흥사의 불경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44, 2009.

서창호, 「17~18세기 전반 영남지역 출토 명문암막새 연구」 『한국기와학회 연구발표회』, No. 8, 2011.

손성필, 『16·17세기 조선시대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송일기·박민희, 「지리산 소재 사찰의 조선시대 개판불서 연구」 『서지학연구』 46, 2011.

유탉일, 「통도사 개판불서의 출판사회학적 분석-유간기불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3, 1990.

「조선후기 울주 운흥사 간행 목판 연구」 토론문

전 진 이 (통도사정보박물관)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은 통도사 정보박물관 학예사 전진이입니다. 오늘은 비록 토론자로 세미나에 참여하였지만 저도 학문에 대해 새내기라서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토론의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부산경남사학회에 감사드립니다.

김동현 선생의 발표 논문은 조선후기 울주 운흥사의 간행 목판에 대한 논의이다. 운흥사는 현재 통도사에 버금가는 규모의 사찰이었으나, 울주군 웅촌면 정족산 산기슭에 사찰 터만 존재한다.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운흥사 간행 목판이 통도사로 이운되어 현재 통도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 운흥사 주변의 사찰로는 통도사, 간월사가 있었는데, 각 사찰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정한 불교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폐사된 운흥사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당시 동부경남의 사회·경제적인 부분까지 비추어 볼 수 있어 잃어버린 지역사의 복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사 탐구에 다양한 연구 방법이 시도되면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고 있어 향후 운흥사 관련 연구가 심화되었으면 한다.

오늘 발표문에는 운흥사에서 목판을 제작하는 체계는 매우 조직적이었으며, 이를 주도하는 인물도 뚜렷하게 조사 분석되고 있다. 사찰에서는 대규모 목판 제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 져야 가능한 사업으로 운흥사의 사세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이번 발표 논문의 의미와 성과가 있지만 향후 논의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부분과 발표자의 견해를 청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p6. <표1>의 분석 결과로 “운흥사의 개판 불서의 주요 목표는 승려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목판이 단순히 승려의 교육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발표자의 견해에 의문이 든다. 목판 제작 목적은 다양하고도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 되므로 발표자의 승려의 교육을 위해서 제작된 목적도 있을 것이라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그러나 불교의 전파 혹은 불교의 종교적 역할을 위해서 또는 시대적 사회적 전반에 걸친 상황을 고려하여 목적을 제시하여야 목판제작 목적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p7. 운흥사에서 제작된 16종의 경판은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중 “셋째, 운흥사의 목판 간행체계는 같은 시기에 목판을 제작하였던 다른 사찰의 목판 제작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각주에 통도사, 용장사, 석왕사, 쌍계사에서 제작한 목판의 후발문을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와 언급하신 사찰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청한다.

셋째, p8. 운흥사 목판 제작 참여자 분석을 하면서, 참여 횟수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설명을 하고 있다. 각수를 9회 이상, 5~8회, 3~4회 이하의 참여자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과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면 추후 목판제작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p10. 경판제작 참여자 중 수원을 설명하면서 갑계에 참여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계는 초기에는 상호간의 친목을 주로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사원의 보수가 주요목적이 되었고, 이후에는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도 운영되었다. 갑계의 역할은 사찰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에는 2기의 갑계 보사비가 있다. 이 부분 또한 추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운흥사 경판 제작에서 갑계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또 역할이 크다면 어떠한지를 보충 설명해 준다면 운흥사 경판의 제작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4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부족한 지적이지만 이번 학술세미나 참여를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전통

-근대 광물학 출현 이전을 중심으로-

한 상 원 (부경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계통
 - 1. 중국의 광물지식
 - 2. 일본의 광물지식
 - 3. 조선의 광물지식
- III.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을 둘러싼 자연계는 크게 동물, 식물,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했던 인류의 역사는 석재로 만들어진 도구로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하며 시작되었다.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석기의 시대는 금속의 시대, 즉 구리와 청동, 철의 시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광물이 인간에 의해 활용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각종 문화와 산업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물질로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되었다.¹⁾

광물에 대한 지식이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서양에서 근대 자연과학이 흥성하고 그것의 한 분과로 광물학이 등장하면서이다. 근대 시기에 그 지식은 동아시아에도 유입되어 전파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물의 개념과 지식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서양의 근대 광물학이 유입되기 이전에 동아시아에는 그것과는 다른 전통에서 발전한 광물지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는 광물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였을까? 이 글은 동아시아의 광물지식이 어떠한 전통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鑛物’이라는 단어는 서양 단어인 Mineral의 근대 번역어이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는 ‘鑛物’이라는 단어 대신 ‘金石’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탐구하였다.²⁾ 金과 石이라는 단어는 중국에

1) 건축용 석재와 각종 도구 및 무기·기계류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금속,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탄화수소 물질, 산업용 비금속 광물류, 그리고 화폐와 장신구에 사용된 다양한 원석과 귀금속류 등 광물의 화학적·물리적 성질들은 현대 문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2) 吉野政治, 「金石學と鑛物學: 氷は鑛物か」(『同志社國文學』 81, 2014), 421~422쪽.

서 비교적 일찍 출현했다. 『설문해자』를 살펴보면, “金, 五色金也”³⁾, “石, 山石也”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오색의 금은 金, 銀, 銅, 鐵, 錫(혹은 鉛)을 의미하며, 石은 넓게 보아 일체의 암석류를 의미한다.⁵⁾ 이후 중국인들은 金과 石을 부수로 삼는 단어들을 통해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암석과 광물, 그리고 합금을 분류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광물지식은 이 금석의 지식을 살펴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⁶⁾

이러한 전통 광물지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학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학계나 일본학계에서도 전통적인 광물지식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저술이 있다. 조셉 니이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중국의 광물지식을 ‘礦物學’과 ‘化學’의 관점에서⁷⁾ 다루면서 그것과 관련한 방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중국학계에서는 지질학 방면에서도 광물지식이 다루어졌다. 1995년에 간행된 『中國近現代礦物學史』⁸⁾와 2011년에 간행된 『中國古代礦物知識』⁹⁾이 그것이다. 일본학계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광물지식을 다룬 몇 편의 논문이 보이며,¹⁰⁾ 최근에 진행된 연구로는 吉野政治의 『日本礦物文化語彙攷』가¹¹⁾ 주목된다. 중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전통적인 광물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도 광물지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광물지식은 3국이 서로 얹혀서 형성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3국의 광물지식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3국의 광물지식을 분석하여 비교해보려는 시도는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서양의 근대 광물학이 유입되기 이전, 동아시아에서 광물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에 존재하는 광물

3) 허신 저, 금하연, 오채금 역음, 『허신 설문해자』(자유문고, 2016), 329쪽.

4) 허신 저, 금하연, 오채금 역음, 『허신 설문해자』(자유문고, 2016), 212쪽.

5) 礦이라는 단어의 경우, 춘추시기 이미 명확하게 ‘礦’의 本字가 기재되어 있다. ‘卅’이다. 『周禮·地官司徒·卅人』에는 ‘卅人是 金(銅), 玉, 錫, 石의 땅을 관장한다’고 했다. 韓汝玠·柯俊, 『中國科學技術史』 礦冶卷(科學出版社, 2007), 73~74쪽.

6) 礦物과 金石이 지칭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다. 金石이라는 용어는 본초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 속에는 암석과 광물 말고도 그것으로 가공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吉野政治, 『日本礦物文化語彙攷』(和泉書院, 2018), 207~209쪽. 엄격한 의미에서 礦物은 천연산으로 규칙적인 결정구조와 명확한 화학적 구성을 가지는 고체지만, 이 글에서는 말하는 광물, 즉 ‘金石’의 범주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금속과 합금, 암석, 보석의 원석, 유기 광물, 염류 등 각종 자연 물질과 인공 물질을 포함한다.

7) 李約瑟 著, 陳立夫 主譯, 『中國之科學與文明 第6冊(氣象學, 地理學, 地圖學, 地質學, 地震學, 礦物學)』(臺灣商務印書館, 1980); 李約瑟 著, 陳立夫 主譯, 『中國之科學與文明 第14冊(煉丹術和化學上)』(臺灣商務印書館, 1982); 李約瑟 著, 陳立夫 主譯, 『中國之科學與文明 第15冊(煉丹術和化學續)』(臺灣商務印書館, 1985).

8) 이 책은 명말청초부터 신중국 성립까지의 시기의 광물지식을 서술했다. 서양과 일본광물학의 번역서료 그리고 중국이 수용한 서양 근·현대 광물학과 중국학자가 저술해 출판한 광물학서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崔雲昊, 『中國近現代礦物學史』(科學出版社, 1995).

9) 이 책은 전근대 시기 중국의 전통적인 광물, 암석지식의 문헌을 고증하고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化學工業出版社, 2011).

10) 大沢眞澄, 「江戸時代, 礦物に関する諸問題: 田村藍水, 平賀源内, シーボルト, ビュルガー, ポンベの事績を中心に」(『日本醫史學雜誌』 54, 2008); 田賀井篤平, 橘由里香, 「シーボルト 礦物標本と江戸時代時代の礦物學」(『日本礦物學會年會・日本巖石礦物鑛床日本學會學術講演會講演要旨集』 2004, 2004); 吉野政治, 「金石學と礦物學: 氷は礦物か」(『同志社國文學』 81, 2014); 吉野政治, 「「金類」から「金屬」へ」(『總合文化研究所紀要』 33, 2016).

11) 『日本礦物文化語彙攷』은 前篇과 後篇으로 구성되었다. 前篇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玉觀과 岩石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後篇에서는 일본의 본초서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광물의 중국이름과 일본이름을 비교하였다. 吉野政治, 『日本礦物文化語彙攷』(和泉書院, 2018).

지식과 관련한 사료를 조사하고, 그 사료 속의 보이는 광물지식을 정리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사료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의 광물지식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동아시아의 광물지식을 분석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광물의 명칭을 오늘날 광물의 명칭으로 정확하게 동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광물과 관련한 여러 인접과학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과학적 지식이 전무한 필자가 각각의 광물을 명확히 분류하고 동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광물지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광물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동시에, 그 대략적인 흐름만을 살펴보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를 구한다.

Ⅱ.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계통

1. 중국의 광물지식

조셉 니이담은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서 중국의 광물지식을 광물학이라는 분야로 다루면서 그것에 관련한 문헌의 범주를 언급하였다. 그는 광물지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살펴봐야할 지식으로 본초학의 지식, 연단술의 화학 지식, 미술방면의 『석보』와 『연보』 지식, 자전과 백과전서의 지식, 『格古要論』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고고학 지식 등을 언급하였다.¹²⁾ 王根元 등도 『中國古代礦物知識』에서 광물지식에 관련해서 살펴봐야할 문헌을 언급하였는데, 본초학 서적, 농업서적과 광야기술방면 서적, 지방지의 지식, 원림 건축관련서적 등이 그것이다.¹³⁾

전통 광물지식과 관련한 문헌을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김문기가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을 연구하면서 제시한 5갈래의 박물학 전통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양어류지식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광물지식도 그러한 5갈래의 박물학 전통에서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박물학의 5가지 갈래는 ①『詩經』의 감성적인 교감, ②『山海經』의 괴이함에 대한 탐구, ③지리서의 체험적 지식, ④類書類의 종합적인 취합, ⑤본초서의 실용적 효용 등이다.¹⁴⁾ 이를 살펴보면 조셉 니이담과 王根元 등이 언급한 문헌의 많은 부분이 이 5가지 박물학적 전통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광물지식은 어류지식의 전통과는 약간 다른 특징이 있다. 박물학의 전통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연단술의 화학 지식과 광야기술방면 서적처럼 광물지식은 직접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지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5갈래의 박물학 전통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연단술의 지식을 포함한 과학기술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도 마땅히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적 전통을 종합하여 분석해야겠지만, 그 전에 앞서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5가지의 박물학적 전통에서 보이는 광물지식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시경』의 전통에서 광물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공자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시를 배워야

12) 李約瑟 著, 陳立夫 主譯, 『中國之科學與文明 第6冊(氣象學, 地理學, 地圖學, 地質學, 地震學, 礦物學)』, 275~280쪽.

13)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1쪽.

14)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명청사연구』 41, 2014), 118쪽.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새와 짐승 그리고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¹⁵⁾는 것을 들었다. 시적인 교감을 위해 군자는 마땅히 鳥獸草木의 ‘名物’을 ‘博學’하고 ‘多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의 이 말은 지식인들에게 동식물을 탐구해야 하는 내면적인 당위성을 제공했다.¹⁶⁾ 즉 『시경』의 전통은 지식인이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시적 언어로써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비록 공자가 말한 이름에 ‘金石’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金石의 비중이 동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시경』에서 광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경』에는 대략 5종의 광물이 보인다.¹⁷⁾ 『시경』과 관련해 고전의 문자를 추려 만든 어휘 저작인 『爾雅』는 특히 『시경』의 어휘가 많이 채택되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⁸⁾ 『이아』는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釋器』와 『釋地』에서 부분적으로 광물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이아』에 대해 주석을 달고 연구한 저작은 일찍부터 여러 종류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東晉 郭璞의 『爾雅注』, 南宋 邢昺의 『爾雅疏』²⁰⁾와 陸佃의 『爾雅新義』, 北宋 鄭樵의 『爾雅注』가 있다. 청대에 이르면 『이아』에 대한 저술이 많아져 그 가운데 邵晉涵의 『爾雅正義』와 郝懿行的 『爾雅義疏』가 널리 통용되었다.²¹⁾ 『이아』는 자체 주석서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저작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廣雅』와 『小爾雅』 등과 같은 저술이다. 이후 ‘雅’자가 책이름에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후세의 ‘雅學’을 이루었다.²²⁾ 그 가운데 당대 梅彪의 『石藥爾雅』²³⁾와

15) “子曰，小子，何莫學夫詩。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 박일봉 역주, 『論語』(육문사, 2000), 488쪽.

16) 南宋代의 輔廣은 조수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면 博物洽聞의 군자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爾雅音圖』를 重刊했던 曾燠은 조수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 하나의 物이라도 알지 못하면 유학자의 수치이니 物을 만나서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다면 사대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丁學游가 『시경』의 동식물을 연구한 책을 『詩名多識』이라 명명한 것도 이런 전통을 잘 보여준다. 김문기, 「근세 동아시아의 魚圖와 어류박물학: 『詩經』과 『山海經』을 중심으로」(『역사와 경계』 105, 2017), 398~399쪽.

17) 金, 玉, 赭, 錫, 鏐이다. 개별적인 광물을 의미하지 않고 암석 그 자체를 의미하는 石은 제외하였다. 錯, 砥, 厲(礪)는 옥을 가는 돌이고 鍛은 사물을 다듬는 큰 돌로 모두 공구를 의미하기에 제외하였다. 程俊英, 『圖文本詩經譯注』 上·下冊(上海古籍出版社, 2006); 赭는 赤土이다. 『康熙字典』(同文書局本), 酉集中, 赤部, 1214쪽; 『설문해자』와 『이아』를 보면 銀을 白金이라 하니, 鏐가 白金이라면 鏐은 銀일 것이다. 『康熙字典』(同文書局本), 戌集上, 金部, 1303쪽; 厲(礪)는 『집전』에서 砥라고 하였다. 鍛은 『모전』에서는 石이라 보았고, 『집전』에서는 鐵이라 보았다. 만약 『집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鍛’이 ‘鐵’이라면 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동석, 『시경 4』(동서문화사, 2020), 1395쪽.

18) 孔穎達은 『이아』가 대부분 『시경』을 해석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 하였다. 박소동, 『역주 모시정의 1』(전통문화연구회, 2017), 113~114쪽.

19) 『爾雅』 釋器第6. 『釋器』에서는 玉, 金, 銀, 錫 4종이 있다; 『爾雅』 釋地第9. 『釋地』에서는 金, 珠 그리고 여러 종류의 玉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20) 『이아』는 주석이 달리면서 그 지식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아』, 『석지』에서는 “西南之美者，有華山之金石焉.”라고 하여 ‘金石’을 말하고 있다. 郭璞의 『이아주』에서는 金을 ‘黃金’으로 石을 ‘礪石’으로 분류하였고, 邢昺의 『이아소』에서는 그것이 왜 ‘황금’과 ‘연석’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3품(금·은·동) 가운데 황금이 상이기 때문에 황금이란 것을 알 수 있고, 연석은 『禮記』 ‘玉藻’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郭璞, 『爾雅注』 卷7, 釋地第9.; 邢昺, 『爾雅疏』 卷7, 釋地第9.

21) 『이아』의 주석본과 연구서에 관해서는 김현철이 정리한 바 있다. 김현철, 「中國 歷代 訓古學의 繼承關係 研究: 『爾雅』와 ‘雅學’類 書籍을 중심으로」(『중국학논총』 4, 1995), 352~354쪽.

22) ‘雅學’ 분야 서적에 관해서는 김현철이 소개한 바 있다. 김현철, 위의 논문, 355~369쪽.

23) 王根元의 분석에 의하면 『石藥爾雅』에는 총 62종의 광물(소량의 암석을 포함한다)과 335개의 광물 동의어가 있다. 이 때문에 광물과 약품의 同義字典이라 평가받는다.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146~148쪽. 『中國科學技術史』 地學卷에서는 『석약이아』에 총 68종의 광물 및 화합물이 있고, 347종의 隱名, 別名, 異名이 보인다고 했다. 唐錫仁·楊文衡, 『中國科學技術史』 地學卷(科學出版社, 2000), 317쪽.

청대 方以智의 『通雅』는 광물을 직접 다루거나 ‘金石’ 부분²⁴⁾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해경』의 전통은 이국적이고 괴이한 것에 대한 지적 탐구에서 ‘博物’의 정신을 밝혔다. 32편의 『산해경』을 18편으로 교정한 劉歆은 “안으로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다섯 방면의 산을 나누고 밖으로는 여덟 방면의 바다를 구분하여 그곳의 진귀한 보물과 기이한 물건들과 낯선 지방의 생산물과 강과 육지의 풀·나무·새·짐승·곤충·기린·봉황이 사는 곳을 기록하였다”고 하였다.²⁵⁾ 『산해경』의 주를 달았던 광박도 “그곳의 아름다운 초목, 기이한 새·짐승, 옥돌과 보석으로 만든 기물, 금고(金膏)와 축은(燭銀)같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와 그것들을 중국에 유포시켰다”고 하였다.²⁶⁾ 이러한 설명처럼 산해경의 서술체제와 내용은 산천의 형세를 말한 이후에 생산되는 광물과 서식하는 동식물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기이한 괴물이나 신령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王根元 등은 『산해경』 가운데서도 山徑(즉 五藏山徑)에 보이는 광물지식을 분석했는데, 거기에는 총 89종의 광물이 보인다고 하였다.²⁷⁾

『산해경』의 이런 전통에 영향을 받은 東晉 張華의 『박물지』도 산천과 지리, 기이한 동식물, 이국의 풍속 등 다양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異產」편에서 보이는 ‘石硫黃’에 관한 이야기는 ‘기이한 것에 대한 매료’와 ‘이국적인 풍물에 대한 취향’이라는 『박물지』의 탐구정신을 보여준다.²⁸⁾

『산해경』과 『박물지』에서 보이는 기이하고 이국적인 광물지식에 비해 보다 실제적인 광물지식은 지리서에서 찾을 수 있다.²⁹⁾ 지리서에서 보이는 광물로서 광물 산지의 중요성은 『禹貢』의 전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³⁰⁾ 『우공』의 揚州부분을 살펴보면, “공물은 금속 3가지가 있다(厥貢惟金三品)”라고 하였다.³¹⁾ 이러한 전통은 이후 지리지에서도 이어졌다. 『漢書』地理志는 62郡에 분포하고 있는 112곳의 金·銀·銅·鐵·鉛·錫 등 광산의 위치를 기록하였고,³²⁾ 『隋書』地理志, 『舊唐書』地理志, 『新唐書』地理志에서도 金·銀·銅·鐵·錫·鉛·汞의 광물의 산지를 기록했다.³³⁾

그렇다면 方志의 경우는 어떠할까? 철광산이 가장 많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인 산서를 예로 살펴보자. 명대의 成化 『山西通志』는 ‘藥屬’에서 광물성 약재 25종, ‘金屬’에서 8종, ‘石屬’에서 3종, ‘色屬’에서 3종, ‘雜屬’에서 3종으로 총 42종의 광물을 실었다.³⁴⁾ 청대의 雍正 『山西

24) 方以智, 『通雅』 卷48, 金石.

25) 정재서 역주, 『산해경』(민음사, 1996), 山海經敍錄, 上山海經表, 29~30쪽.

26) 정재서 역주, 『산해경』, 山海經敍錄, 注山海經敍, 34쪽.

27)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49~69쪽.

28) 張華 저, 김영식 역, 『박물지』(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72~73쪽.

29) 조셉 니이담은 『計倪子』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그 책에 보이는 약 24종의 무기물질이 대부분 『신농 본초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의약의 목적에서 저술된 것이 아니라 공물 진상 및 경제지리의 목적에서 저술되어 보인다고 하였다. 李約瑟 著, 陳立夫 主譯, 『中國之科學與文明 第6冊(氣象學, 地理學, 地圖學, 地質學, 地震學, 礦物學)』, 276쪽.

30)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 116쪽.

31) 『書經』, 夏書, 禹貢; 王根元은 적어도 金·銀·銅·鐵·錫·鉛 6종의 금속을 『우공』에서 말하고 있다고 보았다. “惟金三品”에 대해서는 金·銀·銅이나 黃金·白金·赤金이라는 견해와 靑銅·白銅·紅銅이라는 견해가 있다.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46쪽.

32)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83~85쪽.

33)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132~135쪽.

34) ‘藥屬’에 보이는 광물성 약재로는 石膏, 龍骨, 寒水石, 白石英, 紫石英, 赤石脂, 白石脂, 靑石脂, 黃石脂, 黑石脂, 爐甘石, 禹餘糧石, 氣砂, 自然銅, 石燕子, 雲母石, 太陰玄精石, 膽礬, 無名異, 不灰木, 長理石, 礬石, 金精石, 銀精石, 鐘乳 등으로 25종이 보인다. ‘金屬’에서는 鐵, 靑鐵, 黃鐵, 靑鑛鐵, 錫, 銅, 金, 銀 등 8종이 보인다. ‘石屬’에서는 瑪瑙, 花斑石, 黑石 등 3종이 보이며, ‘色屬’에서는 石碌, 礬紅, 銀朱 등 3종이 보인다. ‘雜屬’에서는 硝, 礬, 石炭 등 3종이 보인다. 成化 『山西通志』, 卷6, 土產.

通志』는 지역을 구분하여 생산되는 광물을 실었다.³⁵⁾ 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공물이나 실용가치로 광물 산지에 대한 지식은 국가가 파악해야 하는 지식이었던 것이다.

類書類에도 광물지식이 보인다. 唐高祖의 명으로 편찬된 『藝文類聚』는 「寶玉部」 上·下 2권에서 총 7개의 항목을 두어 광물에 관한 지식을 다루었다.³⁶⁾ 宋太宗의 명으로 편찬된 『太平御覽』은 部の 명칭을 「寶玉部」에서 「珍寶部」로 바꾸고 『예문유취』보다 풍부한 광물지식을 실고 있다. 『太平御覽』은 『예문유취』에 비해 양적으로도 2권에서 12권으로 늘어나고, 다루는 항목도 38개의 항목으로 많아졌다.³⁷⁾ 송대에 이르러 그전보다 광물에 관한 지식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대의 유서류 중에서는 『三才圖會』가 주목된다. 명말 王圻가 1607년 완성한 『三才圖會』는 「珍寶」 2권 가운데 권1에서 광물지식을 다루고 있는데, 총 60개의 항목을 두어 광물을 다루었다.³⁸⁾ 왕기가 서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먼저 그림을 보여준 이후에 글로써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³⁹⁾ 청대에는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유서인 『古今圖書集成』이雍正 6년(1726년)에 완성되었다. 광물에 관해서는 方輿彙編의 坤輿典과 經濟彙編의 食貨典에서 그 지식을 찾을 수 있다. 方輿彙編의 坤輿典에서는 土部, 石部, 砂部, 汞部, 礬部, 黃部를 두었고,⁴⁰⁾ 經濟彙編의 食貨典에서는 珠部, 玉部, 水晶部, 琅玕部, 珊瑚部, 瑪瑙部, 玻璃部, 玻璃部, 璫瑯部, 琥珀部, 硨磲部, 寶石部, 金部, 銀部, 銅部, 鉛部, 錫部, 鐵部를 두어 광물과 관련한 지식을 실었다.⁴¹⁾ 또한 經濟彙編의 考工典에는 金工部和 石工部를 두어 각종 광물을 다루는 기술도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광물지식의 발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本草學이었다. 약재로서 광물에 대한 지식은 약학과 의학의 경험적 관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병의 정확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

35) 山西省에서는 鐵, 礬, 石炭, 石灰, 金, 銀이 보인다. 太原府에서는 鹽, 硝, 硫黃, 龍骨, 地脂, 磁石, 爐甘石, 銅, 琉璃, 白玉石, 瑪瑙石, 銀이 보인다. 平陽府에서는 銅, 丹砂, 石膏, 玉이 보인다. 潞安府에서는 赤銅, 長理石, 石脂, 石膏가 보이며, 汾州府에서는 石膏, 黃堊, 涅石이 보인다. 大同府에서는 青鑛鐵, 不灰木, 碾玉砂, 花斑石, 凝水石, 石綠이 보인다. 朔平府에서는 鹽, 金土, 五色石이 보이며, 澤州府에서는 鉛, 錫礦, 禹餘糧, 白石英, 不灰木, 文石, 烏石이 보인다. 蒲州府에서는 石膽이, 遼州에서는 無名異가, 平定州에서는 嬰石이 보인다. 忻州에서는 鹽, 雲母石이, 代州에서는 赭石, 礪石, 銅이, 保德州에서는 自然銅이 보인다. 解州에서는 鹽, 朴硝, 太陰玄精石, 青礬石, 花慈石이 보인다. 絳州에서는 銅, 文石, 金精石·銀精石이, 吉州에서는 堊土, 石脂가 보인다. 雍正 『山西通志』, 卷47, 物產.

36) 상권은 寶, 金, 銀, 玉, 珪의 항목을 두었고, 하권은 璧, 珠, 貝, 馬瑙, 琉璃, 車渠, 玳瑁, 銅의 항목을 두었다. 그 가운데 광물과 관련한 항목은 金, 銀, 玉, 珠, 馬瑙, 琉璃, 銅 등 7항목이 보인다. 歐陽詢, 『藝文類聚』 卷83, 寶玉部上; 卷84, 寶玉部下. 여기서 말하는 琉璃의 정체에 대해서는 녹주석, 수정, 청금석 등 몇 가지 설이 있다. 최정임, 「불교의 보석론」, 『불교문예연구』 8(2017), 260~263쪽. 車渠에 관해서 『예문유취』에서는 『廣雅』를 인용해 '車渠는 돌로 옥에 버금간다'고 하여 石類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후에 이시진은 이것을 조개의 한 종류로 石類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단 車渠는 광물을 다루는 항목에서 제외한다. 李時珍, 『本草綱目』 卷46, 介部2, 車渠.

37) 李昉, 『太平御覽』 卷802~813, 珍寶部. 802~806권까지는 寶, 珠, 玉, 圭, 璧을, 807권에서는 璚, 琮, 璜, 珊瑚, 玳瑁, 貝을, 808권에서는 琥, 琥魄, 瑪瑙, 琉璃, 車渠, 頗黎, 水精, 云母, 瑟瑟, 玕琪을, 809권에서는 瑯玕, 火齊, 碧, 瑤, 瑱, 珉, 闔搜, 瑤瑰, 玫瑰, 武夫, 金을, 810~813권에서는 金, 銀, 黃銀, 水銀, 鉛, 錫, 銅, 鐵, 金鋼, 鑠石의 항목을 실고 있다. 42항목 가운데 珊瑚, 玳瑁, 貝, 車渠 등을 제외한 38개의 항목이 광물이나 옥과 관련한 것을 다루고 있다.

38) 王圻, 『三才圖會』, 卷83, 珍寶.

39) 『三才圖會』 서문에 따르면, 왕기는 글에 의해 그림의 가치가 쇠퇴한 것을 한탄하여 『삼재도회』를 편찬한 목적이 그림의 부흥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王圻, 『三才圖會』, 卷1, 三才圖會引.

40) 『古今圖書集成』 第51~53冊, 方輿彙編, 坤輿典.

41) 『古今圖書集成』 第701~704冊, 經濟彙編, 食貨典.

42) 『古今圖書集成』 第781冊, 經濟彙編, 考工典.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본초서로 알려진 후한대의 『神農本草經』은 上藥 18종, 中藥 13종, 下藥 8종 총 39종의 광물성 약재를 싣고 있다.⁴³⁾ 남북조시대 陶弘景(456~536)의 『本草經集注』는 『神農本草經』이 싣고 있는 365종 약물에 자신의 저작인 『名醫別錄』에 수록된 365종 약물을 더해 편집한 것이다. 上藥 20종, 中藥 19종, 下藥 20종으로 총 59종의 광물성 약재를 싣고 있는데, 약효를 비롯한 명칭과 산지 그리고 형상과 성질이 기재되어 있다.⁴⁴⁾ 이러한 『본초경집주』의 형식은 이후에 여러 본초서들의 범본이 되어 중국 본초학을 계통화시키는 것에 큰 공헌을 했다.⁴⁵⁾ 당대에는 관찬 본초서인 『新修本草』가 편찬되었다. 이전의 본초서에 비해 늘어난 약재 지식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수본초』에는 840여종의 약물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광물성 약재는 82종을 싣고 있다.⁴⁶⁾ 송대에도 『開寶本草』, 『嘉祐本草』, 『圖經本草』 등 관찬 본초서가 편찬되었다.⁴⁷⁾ 唐慎微의 『經史證類備急本草』는 『가우본초』와 『도경본초』를 토대로 불교서적과 『道藏』에 보이는 약물지식을 더해 편찬되었다. 『經史證類備急本草』는 총 1558종의 약재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광물성 약재는 총 143종을 싣고 있다.⁴⁸⁾

중국 본초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받는 이시진의 『본초강목』은 『증류본초』를 기반으로 저술되었지만, 이전까지 본초서에 포함되었던 연단술의 잘못된 광물지식을 수정하고 藥物의 분류방면에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시진은 약물을 무기물·식물·동물 3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하위항목으로 部를 배치하여 모두 16부를 두었다. 광물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玉石部로 분류하던 것을 金石部로 새로 분류하였다. 그는 金石部를 金類, 玉類, 石類, 鹵石 등 총 4종류로 분류하여 金類 28종·玉類 14종·石類上·下 72종·鹵石類 20종·附錄 27종⁴⁹⁾ 등 총 161종의 광물성 약재를 소개했다.

이상으로 박물학의 5가지 전통에서 보이는 광물지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것만으로 중국 광물지식의 전통을 모두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연단술과 과학기술서⁵⁰⁾ 그리고 필기류 저작 등에서도 광물지식이 형성되었음을 찾아볼

43)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101~106쪽.

44)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115~123쪽.

45) 尙志鈞, 「梁·陶弘景『本草經集注』對本草學的貢獻」(『北京中醫藥大學學報』 22, 1999), 7~8쪽.

46)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139~142쪽.

47) 『開寶本草』는 『新修本草』와 『蜀本草』를 토대로 하고 陳藏器的 『本草拾遺』를 참고하여 편찬한 본초서이다. 『新修本草』에 비해 약재가 139종 늘어났다. 『嘉祐本草』는 『開寶本草』를 토대로 改訂增補한 것으로 99종의 약재가 추가되었다. 『圖經本草』는 약재가 증가함에 따라 『新修本草』의 『圖經』을 增補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편찬되었다. 총 780종의 약재를 싣고 있고, 635종의 약재에 933쪽의 삽화를 수록했다. 안상우, 「본초서의 계통과 본초학 발전사」(『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1, 2005), 25쪽.

48)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167~171쪽.

49) 이시진은 “『名醫別錄』에 이름은 있지만 쓰지 않는 여러 가지 광석과 여러 본초학자들이 나열하였지만 상세하지 않아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곳에 모두 붙인다.”라고 하였다. 李時珍, 『本草綱目』 卷11, 金石5, 附錄諸石二十七種.

50) 宋應星의 『天工開物』이나 方以智의 『物理小識』같은 책들이 그것이다. 『天工開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卷3 ‘彰施’에서는 안료의 원료로 사용된 광물을 언급하고 있다. 卷7 ‘陶埴’에서는 도자기의 원료로 사용된 광물을 언급하고 있다. 卷11 ‘燔石’에서는 石灰, 煤炭, 礬石, 白礬, 青礬, 紅礬, 黃礬, 膽礬, 硫磺, 砒石 등 10종이 광물을 다루고 있다. 卷14 ‘五金’에서는 黃金, 銀, 朱砂銀, 銅, 倭鉛, 鐵, 錫, 鉛, 胡粉, 黃丹 등 광물을 다루고 있다. 卷15 ‘佳兵’에서는 硝石, 硫黃을 다루고 있으며, 卷16 ‘丹青’에서는 朱砂, 水銀, 石綠, 代赭石, 石黃 등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卷18 ‘珠玉’에서는 貓精, 靺蛄芽, 星漢砂, 琥珀, 木難, 酒黃, 喇子, 瑟瑟珠, 玳瑁, 鴉鵂石, 空青, 玫瑰, 玉, 瑪瑙, 水晶, 琉璃를 다루고 있다. 宋應星, 『天工開物』. 방이지의 『物理小識』는 총 12권으로 15類 98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광물지식은 卷7 ‘金石類’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10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周瀚光·賀聖迪, 「我國十七世紀的一部百科全書: 方以智의『物理小識』」(『中國科技史料』 7, 1986), 43쪽.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광물지식의 전통을 통해서도 중국 광물지식의 형성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 광물지식의 전통은 조선이나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형성과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2. 일본의 광물지식

다음으로 일본 광물지식의 전통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먼저 지리서의 전통을 확인하기 위해 『會津風土記』와 『新編 會津風土記』에 보이는 광물지식을 살펴보겠다. 근세 일본 지리서 편찬의 시작으로 평가받는 『會津風土記』는 아이즈번의 초대번주인 保科正之의 명으로 1666년에 편찬되었다. 아이즈번 4郡에 대한 지리서로 총 1권이다. 에도시대 일본지리서를 대표하는 『新編 會津風土記』는 1803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1809년에 완성되었다. 이 지리서는 『會津風土記』를 증보교정한 지리서로 총 120권으로 구성되었다.⁵¹⁾ 『會津風土記』의 土産에서는 광물로 鐵沙 하나만을 기재하고 있다.⁵²⁾ 『新編 會津風土記』의 會津郡 土産 부분을 살펴보면, 瀧澤村에서는 金과 石膏를⁵³⁾, 崎川村에서는 鐵沙를⁵⁴⁾, 慶山村에서는 黃土⁵⁵⁾ 등을 기재하고 있다. 나머지 郡의 土産 항목에 기재된 광물을 추가하면 지역의 범위와 광물의 종은 더 늘어난다.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공물이나 자원으로서 광물 산지에 대한 지식이 중요했던 것이다.

일본 광물지식의 형성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은 본초학의 전통이었다. 중국의 『神農本草經』과 『神農本草』가 일본에 전래되면서 그것들은 일본 본초학의 기원이 되었다.⁵⁶⁾ 일본에서 『神農本草』가 유행하자 그것에 기록된 漢名의 약재를 和名, 즉 일본의 명칭으로 번역한 본초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918년에 深根輔仁이 편찬한 『本草和名』은 총 966종의 약재를 싣고 있는데, 그 가운데 광물성 약재는 83종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和名이 주석된 광물은 20종이다.⁵⁷⁾ 丹波康賴가 저술한 『康賴本草』도 78종의 광물을 싣고 있는데, 여기에 和名을 주석한 광물은 12종이다.⁵⁸⁾ 이후 송대의 『證類本草』와 그것을 증보한 『經史證類大觀本草』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 본초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거가 되는 본초서가 되었다.⁵⁹⁾

이시진의 『本草綱目』이 일본에 전래된 시기는 1607년이다. 『本草綱目』의 전래와 함께 일본 본초학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시진이 『本草綱目』을 편찬하면서 구성했던 ‘集解’는 약재의 산지와 형태 그리고 감별과 채취에 관해서 다루는 부분으로 상당히 자세하다. 이러한 ‘集解’의 특징으로 인해 『本草綱目』은 박물학적 색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일본 본초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그 과정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본초학이 수립되었다.⁶⁰⁾ 林羅山은 그 서막을 열었

51) 『新編 會津風土記』는 領內(陸奥國會津郡, 耶麻郡, 河沼郡, 大沼郡の一部, 安積郡福良組, 越後國蒲原郡の一部, 魚沼郡の一部, 下野國鹽谷君河島組)의 경계, 山川, 原野, 土産, 關梁, 水利, 郡署, 倉廩, 神社, 寺院, 墳墓, 古蹟, 釋門, 人物, 舊家, 褒善을 16부분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田崎公司, 『新編 會津風土記』と由緒: 大槻太郎左衛門の亂を事例に(『大阪商業大學論集』 15, 2019), 24~27쪽.

52) 『會津風土記』, 土産.

53) 『新編 會津風土記』 卷26, 陸奥國會津郡之二, 瀧澤組, 瀧澤村, 土産.

54) 『新編 會津風土記』 卷27, 陸奥國會津郡之三, 原組, 崎川村, 土産.

55) 『新編 會津風土記』 卷32, 陸奥國會津郡之七, 南青木組, 慶山村, 土産.

56) 上野益三, 『日本博物學史』(講談社, 1989), 36쪽.

57) 83종의 광물 가운데 일본이름이 붙은 광물은 雲母, 金屬, 銀屑, 水銀, 雄黃, 石硫黃, 鐵落, 鐵, 剛鐵, 鐵精, 鉛丹, 鉛, 銅弩牙, 代赭, 鹵鹹, 大鹽, 白堊, 石灰, 冬灰, 伏龍灰 20종이다. 吉野政治, 『日本礦物文化語彙攷』, 244~245쪽.

58) 78종의 광물 가운데 일본이름이 붙은 광물은 鐵落, 鐵粉, 鉛, 水銀, 石鍾乳, 石膏, 桃花石 2종, 雲母, 石花, 石硫黃, 方解石 12종이다. 吉野政治, 『日本礦物文化語彙攷』, 256쪽.

59) 上野益三, 『日本博物學史』, 54~55쪽.

던 인물로 1612년에 『본초강목』에 실린 漢名의 약재를 和名으로 번역한 『多識編』을 출간했다. 그는 『다식편』에서 광물을 土部, 金部, 玉部, 石部로 나누어 다루었다.⁶¹⁾ 그 후 『본초강목』의 수요가 증가하고 본초학이 번성하면서 일본 독자적인 본초서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貝原益軒의 『大和本草』는 『본초강목』이 일본에 전래된 지 100년 뒤인 1709년에 간행되었다. 『본초강목』의 내용을 일본식으로 이해하고 소화한 『대화본초』는 일본 본초학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貝原益軒은 『본초강목』에서 772종, 기타 본초서에서 203종, 일본 고유의 것에서 358종, 해외의 것에서 29종 등 총 1362종의 약재를 기재했다.⁶²⁾ 또한 그는 “『본초강목』이 물품을 분류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것이 많다”⁶³⁾라고 하여 이시진의 분류법을 비판하고 水, 火, 金玉土石, 穀, 造釀, 菜蔬, 藥, 民用草, 花草, 園草, 蓼, 蔓草, 芳草, 水草, 海草, 菌, 竹, 雜草, 四木, 果木, 藥木, 園木, 花木, 雜木, 河魚, 海魚, 水蟲, 陸蟲, 介, 水鳥, 山鳥, 小鳥, 家禽, 雜禽, 異邦禽, 獸, 人의 37부문으로 나누었다. 광물에 대해서는 이시진이 金石部에서 金, 玉, 石, 鹵로 분류한 것을 金玉土石으로 다시 분류하여 土部를 추가하여 다루었다. 金玉土石에는 67종의 광물이 실려 있다.⁶⁴⁾ 주목되는 인용서목으로는 『천공개물』이 있는데, 특히 貝原益軒은 일본학자들 가운데 『천공개물』을 가장 먼저 인용한 인물이었다.⁶⁵⁾ 貝原益軒이 본초서에 과학기술서라고 할 수 있는 『천공개물』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문에서 그는 본초서 이외의 책을 인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의 물품은 무궁하여 『본초강목』에 실려 있는 것은 1800여 이름에 그칠 뿐이다. 『본초강목』에 실려 있지 않는 것도 매우 많으며, 본초서 이외의 많은 책에 실려 있는 물품도 많다. …… 그 때문에 이 책은 본초서에서 채록한 것이 천백에서 십일뿐이다. 가지각색으로 이 책을 편집하여 기록한 것은 본초서에 실려 있지 않은 것과 많은 책에 실린 것에 내 뜻이 있기 때문이다.⁶⁶⁾

그는 『본초강목』이 모든 물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본초강목』 이외의 많은 책에 더 다양하고 많은 물품이 실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초서가 아닌 많은 책에 실려 있는 물품에 자신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천공개물』을 인용하여 본초학에서 다루지 않는 광물지식도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본초서의 광물지식과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유서류에서 보이는 광물지식이다. 中村惕齋의 『訓蒙圖彙』는 일본에서 그림이 삽입된 최초의 백과전서로 1666년에 간행되었다. 17부문 총 22권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卷7 ‘寶貨’에서 광물 31종을 싣고 있다.⁶⁷⁾ ‘寶貨’에서는 광물 이외의 비단이나 가죽 같은 것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루는 방식은 그림이 주체이고, 그림 우측에 한자이름과 일본이름을 달았다. 이름 밑에 간단한 주를 달았지만 인용출처는 적지 않았다. 1695년에 간행된 『頭書增補訓蒙圖彙』는 『訓蒙圖彙』가 증보

60) 矢部一郎, 『江戸の本草: 藥物學と博物學』(サイエンス社, 1984), 47~48쪽.

61) 林羅山, 『多識編』 卷1, 土部4·金部5·玉部6·石部7. 『본초강목』에서는 金石部를 金類, 玉類, 石類, 鹵類로 나누었지만, 『多識編』에는 石部에서 鹵類까지 다루었다.

62) 矢部一郎, 『江戸の本草: 藥物學と博物學』, 64쪽.

63) 貝原益軒, 『大和本草』 卷1, 論本草書.

64) 貝原益軒, 『大和本草』 卷3, 金玉土石.

65) 貝原益軒은 1694년에 간행된 자신의 다른 저작인 『花譜』에서 『天工開物』을 가장 먼저 인용했다. 『대화본초』에서는 試金石의 항목에서 『천공개물』을 인용하였다. 潘吉星, 『中外科學之交流』(中文大學出版社, 1993), 230~231쪽.

66) 貝原益軒, 『大和本草』 卷1, 大和本草凡例.

67) 金, 銀, 鉛, 鐵, 銅, 珠, 玉, 礬, 硃, 硫, 硝, 磁, 砒, 砥, 礪, 玻璃, 瑪瑙, 瑠璃, 珊瑚, 琥珀, 琅玕, 水銀, 雲母, 水精, 火精, 綠青, 白粉, 石灰, 石膽, 海鹽, 浮石 등 31종이다. 中村惕齋, 『訓蒙圖彙』 卷7, 寶貨.

된 책으로 광물은 ‘溫石’과 ‘滑石’이 추가되었다.⁶⁸⁾

일본 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책은 『和漢三才圖會』이다. 『和漢三才圖會』는 寺島良安이 1712년에 간행한 백과사전으로 105권 81책으로 구성되었다. 명말 王圻의 『三才圖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천문, 인사, 지리, 관직, 의학, 무기, 오락, 일상용품 등에 이르기 까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식물, 동물, 광물에 대한 박물학적 관심이 큰 비중을 차지해 식물은 23권, 동물은 18권, 광물은 3권으로 합계 44권으로 소개하고 있다. 광물은 권59 ‘金類’, 권60 ‘玉石類’, 권61 ‘雜石類’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화한삼재도회』는 金類에서 26종, 玉石類에서 14종, 雜石類에서 69종, 총 109종을 싣고 있다.⁶⁹⁾ 그리고 寺島良安은 ‘안(按)’을 통해 일본 당대의 변화 현상을 서술하고, 자신이 인용한 중국과 일본의 광물 지식은 그 출처를 밝히고 있다.

18세기 일본의 광물지식은 8대 쇼군 德川吉宗의 ‘國產獎勵’ 정책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 지방에 대한 약재조사가 철저해졌기 때문이다.⁷⁰⁾ 그 가운데 주목되는 본초학자는 인삼 재배 연구로 잘 알려진 田村藍水이다. 그가 저술한 『日本諸州藥譜』에는 광물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광물삽화가 보인다.⁷¹⁾ 당시 과학적인 광물삽화를 그려낸 것은 田村藍水 정도라고 보는데, 삽화 가운데 白石英과 丹砂의 삽화가 『본초강목』이나 『화한삼재도회』의 광물삽화에 비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⁷²⁾

田村藍水の 제자 平賀源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芒消와 火浣布 등의 제작과 광산개발로 알려진 그는 스승인 田村藍水와 함께 1757년 이후로 다섯 차례 藥品會(物産會)를 개최하여 전국의 약품을 수집해 감별하였다. 平賀源内는 5차례의 藥品會에서 출품된 2000여 종의 약재 가운데 중요한 360종을 선별하고 기록하여, 1763년에 『物類品隲』을 간행했다. 그는 『본초강목』의 분류방식을 수용하여 水, 土, 金, 玉, 石, 草, 穀, 菜, 果, 木, 蟲, 鱗, 介, 獸의 14부문으로 약재를 분류하였다. 『物類品隲』은 本編 4권, 圖繪 1권, 附錄 1권, 총 6권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광물은 金部 14종, 玉部 11종, 石部 85종으로 총 110종을 싣고 있다.⁷³⁾ 『物類品隲』의 첫 표지를 살펴보면 “藍水田村先生鑑定”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⁷⁴⁾ 『物類品隲』에는 藍水田村의 광물지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짚고 넘어가야 할 책이 있다. 바로 에도시대 ‘珍石’과 ‘奇石’의 수집가인 木內石亭의 『雲根志』이다. 木內石亭은 田村藍水の 문하로 입문하여 平賀源内와 교류하면서 物産會에도 참석했던 인물이다.⁷⁵⁾ 그가 편찬한 『雲根志』는 ‘珍石’과 ‘奇石’에 대해 탐구한 책으로 총 3편으로 구성되었다. 前編은 1773년에 간행되었고, 後編은 1779년에 간행되었다. 끝으로 三編은 1801년에 간행되었다.⁷⁶⁾ 『운근지』에는 광물과 암석 그리고 화석과 석기 등 2000여 품이 기재되어 있다. 여러 분류 가운데 採用類를 예로 살펴보면, 水銀, 自然銅, 金鑛石 등 금속과

68) 中村惕齋, 『頭書增補訓蒙圖彙』 卷7, 寶貨.

69)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卷59, 金類; 卷60, 玉石類; 卷61 雜石類.

70) 矢部一郎, 『江戸の本草: 藥物學と博物學』, 82쪽.

71) 광물삽화는 총 71폭이 보인다. 그 가운데 중복되는 광물은 白堊土, 赤土, 靑堊으로 2번 확인된다. 田村藍水, 『日本諸州藥譜』.

72) 大沢眞澄, 「江戸時代, 鑛物に関する諸問題: 田村藍水, 平賀源内, シーボルト, ビュルガー, ポンベの事績を中心に」, 100쪽.

73) 土井康弘, 『本草學者 平賀源内』(講談社, 2008), 72~73쪽.

74) 平賀源内, 『物類品隲』 卷1.

75) 杉本 つとむ, 『江戸の博物學者たち』(講談社, 2006), 142쪽.

76) 『雲根志』의 분류방식을 살펴보면, 前編에서는 靈異類, 採用類, 變化類, 奇怪類, 愛玩類로 분류하였고, 後編에서는 光彩類, 生動類, 像形類, 鐫刻類로 분류하였다. 三編에서는 寵愛類, 採用類, 奇怪類, 變化類, 光彩類, 鐫刻類, 像形類로 분류하였다. 吉野政治, 『日本鑛物文化語彙攷』, 139쪽.

石灰, 自然灰, 溫石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⁷⁷⁾ 이러한 愛好石의 관점에서 탐구되었던 광물지식도 일본 광물지식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책은 小野蘭山の『本草綱目啓蒙』이다. 일본 박물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받는 이 본초서는 1803년부터 간행되어 1806년에 완간되었다.『本草綱目啓蒙』은『본초강목』의 분류방식에 따라 자연물의 명칭, 이명, 산지, 산출상황, 형태,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⁷⁸⁾ 총 48권 가운데 권4~7에 金類 28종, 玉類 14종, 石類는 上·下로 32·40종, 鹵石類 20종, 부록 2종 등 총 136종의 광물성 약재가 기재되어 있다. 부록에는『본초강목』에서 다루고 있는 부록 27종 가운데 火藥과 鎮宅大石 2종만을 기재했다.⁷⁹⁾

3. 조선의 광물지식

조선의 광물지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시경』의 전통에서 시를 작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광물을 다루고 있는 조선의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산해경』과『박물지』의 괴이한 것에 대한 탐구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지리서의 체험적 지식에서는 조선의 광물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건국 이후 여러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慶尙道地理志』와『新撰八道地理志』를 시작으로『世宗實錄地理志』,『八道地理志』,『東國輿地勝覽』,『新增東國輿地勝覽』등이 편찬되었고,⁸⁰⁾ 조선 후기에는 영조대에『輿地圖書』가 편찬되었다.⁸¹⁾ 이 글에서는 지리지에 보이는 조선의 광물지식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 초기 지리지에서는『慶尙道地理志』와『慶尙道續撰地理誌』그리고『世宗實錄地理志』에 보이는 광물지식을 살펴보고, 조선후기 지리지에서는『輿地圖書』에 보이는 광물지식을 살펴보겠다. 지역은 전체 지역이 아닌 경상도로 한정해 살펴보겠다.

『경상도지리지』는 1425년에 경상도 관찰사 河演에 의해 편찬되었다.『경상도지리지』의 범례를 살펴보면, “전례에 의거하여 정한 貢賦에는 어떤 물건이 있고, 그 땅에서는 어떤 물건이 나는지에 대해 처리하라. 土産은 金, 銀, 銅, 鐵, 珠, 玉, 鉛, 錫, 篠蕩, 藥材, 磁器, 陶器와 그 땅에서 경작하는 雜物도 아울러 상세히 처리하라”라고 하였다.⁸²⁾ 이에 광물은 ‘土産貢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慶州道는 총 9곳에서 토산으로 광물을 기재하였다.⁸³⁾

이어서『경상도지리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慶尙道續撰地理誌』가 1469년에 편찬되었다.『慶尙道續撰地理誌』는『경상도지리지』에 비해 더 늘어난 14곳에서 광물이 土産으로 확인된다.⁸⁴⁾ 1454년에 편찬된『世宗實錄地理志』에서 광물이 土産으로 기재된 경상도 지역은

77) 『雲根志』에 관해서는 吉野政治이 연구한 바 있다. 吉野政治, 『日本鑛物文化語彙攷』, 139~183쪽.

78) 矢部一郎, 『江戸の本草: 藥物學と博物學』, 74~78쪽.

79) 小野蘭山, 『本草綱目啓蒙』 卷4, 金石1, 金類; 卷4, 石2, 玉類; 卷5, 石3, 石類上; 卷6, 石4, 石類下; 卷7, 石5, 鹵石類·附錄諸石.

80) 조선초기 지리지 편찬에 관해서는 정두희가 연구한 바 있다. 정두희,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1」(『역사학보』 69, 1976); 정두희,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2」(『역사학보』 70, 1976).

81) 조선후기 지리지 편찬에 관해서는 배우성이 연구한 바 있다. 배우성, 「18세기 全國地理志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한국학보』 22, 1996).

82) 『校訂慶尙道地理志·慶尙道續撰地理誌』(불함문화사, 1976), 27쪽.

83) 密陽都護府에는 鐵·磬石이, 蔚山郡에는 正鐵·水鐵이, 迎日縣에는 礪石이 보인다. 順興都護府에는 水精石이, 靑松郡에는 白土가, 松生縣에는 朱土가, 盈德縣에는 正鐵이 보인다. 龍宮縣에는 沙鐵이, 金海都護府에는 銀·鐵이, 昌原都護府에는 鉛·銅·鐵이 보인다. 『校訂慶尙道地理志·慶尙道續撰地理誌』.

84) 慶州府와 梁山郡 그리고 彦陽縣에는 沙鐵이, 蔚山郡에는 水鐵이 보인다. 靈山縣에는 銅·鐵이, 安東大都護府에는 金·銀이, 寧海都護府에는 銅·鉛·鐵이, 奉化縣에는 金·銀이 보인다. 尙州牧에는

총 22곳으로, 철과 관련한 물산이 5개, 동과 관련한 물산 3개, 銀石, 磬石, 瑪瑙石, 磊綠, 礪石, 水晶石, 白土, 朱土, 碌礪 등 총 17개의 물산이 확인된다.⁸⁵⁾

다음으로 조선후기 지리서인 『輿地圖書』를 살펴보자. 『여지도서』는 각 고을마다 40여 항목을 다루고 있는데, 광물은 그 가운데 物産에서 보인다. 物産 대신에 土産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표기만 다를 뿐 같은 항목이다. 『여지도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物産 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 추가된 물산의 경우 ‘新增’이라는 표기로 밝혀두었다. 또한 物産의 항목에서 당시 생산되지 않는 것은 ‘今無’라고 그것을 표시하였다.⁸⁶⁾ 따라서 『여지도서』에 보이는 광물의 산지를 파악한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광물의 산지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1> 『輿地圖書』 慶尙道 物産에 보이는 광물⁸⁷⁾

都	고을	物産	계	고을	物産	계
慶尙道	慶州	白礬, 沙鐵, 石硫黃	3	密陽	班石	1
	晉州	白土	1	淸道	石硫黃	1
	陝川	鐵	1	安東	鐵, 紫石	2
	醴泉	鐵	1	寧海	銅, 鉛	2
	豐基	水精石	1	金海	鐵	1
	尙州	玉石, 玉燈石, 鐵	3	昌原	鐵, 鉛銅石	2
	延日	礪石	1	固城	綠礬	1
	長鬐	磊碌	1	禮安	鐵	1
	彦陽	鐵	1	龍宮	鐵	1
총계	9		13	9		12

『輿地圖書』에서 광물이 물산으로 기재된 경상도 지역은 총 18곳으로, 철과 관련한 물산이 2개, 동과 관련한 물산이 2개, 鉛·白礬·石硫黃·白土·水精石·玉石·玉燈石·礪石·磊碌·班石·紫石·綠礬 등 총 16개의 물산이 확인된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물이나 실용가치로의 광물산지에 대한 지식이 국가에서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리서에는 광물의 명칭과 산지만을 기록하여 광물의 형태와 성질 등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자원으로써 광물의 중요성에 집중한 것으로 광물 자체에 대한 박물학적인 관심은 아니었던 것이다.

본초서에서 보이는 광물지식은 어떠할까? 왕명으로 盧仲禮 등이 편찬한 『鄉藥集成方』은 총 85권으로, 광물은 권77 ‘石部’에서 다루고 있다. 『鄉藥集成方』은 광물성 약재를 三品으로 분류하여 上品 16종, 中品 42종, 下品 53종, 총 111종을 싣고 있다.⁸⁸⁾ 그 가운데는 車轄, 社壇,

玉이, 陝川郡에는 金과 鐵이 보인다. 金海에는 沙鐵이, 昌原에는 銅·鉛·鐵이, 三嘉에는 沙鐵이, 山陰에는 黃金·沙鐵이 보인다. 『慶尙道續撰地理志』.

85) 密陽都護府에는 磬石, 石鐵이, 蔚山郡에는 白銅, 鐵, 水鐵, 生鐵, 瑪瑙石이 보인다. 長鬐縣에는 磊綠이, 靈山縣에는 銅石이, 迎日縣에는 礪石이 보인다. 順興都護府에는 水晶石이, 靑松郡에는 白土, 朱土가, 仁同縣에는 銀石이 보인다. 金海都護府에는 沙鐵, 銀石이, 昌原都護府에는 沙鐵, 鉛銅石이 보인다. 固城縣에는 碌礪이, 河東縣에는 朱土가 보인다. 慶州府·彦陽縣·安東大都護府·醴泉郡·盈德縣·尙州牧·陝川郡·龍宮縣·山陰縣·三嘉縣은 沙鐵 하나만이 물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86) 『輿地圖書』의 物産 항목에 관해서는 서종태가 연구한 바 있다. 서종태, 『『輿地圖書』의 物産 조항 연구』(『한국사학보』 25, 2006).

87) 『輿地圖書』 下, 『慶尙道』.

88) 『鄉藥集成方』 卷77, 石部上品, 石部中品, 石部下品.

土地, 仰天皮 등을 포함하고 있어 111종 전부가 광물이 아닌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허준이 1610년에 완성한 『東醫寶鑑』은 土部, 玉部, 石部, 金部에서 광물을 다루고 있다.⁸⁹⁾ 土部는 18종⁹⁰⁾, 玉部는 4종, 石部는 55종, 金部는 33종으로⁹¹⁾, 총 110종을 실고 있다. 滑石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忠州에서 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⁹²⁾라고 하여 조선에서의 산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유서류를 살펴보자. 조선 최초의 유서라고 평가받는 李睟光의 『芝峯類說』은 광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항목은 없지만, 服用部의 金寶에서 金·銀과 琅玕, 琥珀 등 몇 가지 광물을 언급하고 있다.⁹³⁾ 특히 水晶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 그는 “내가 태평할 때, 바닷가에 사는 백성의 집 후원에서 돌맹이를 파내어 자세히 보니 수정이었다. 큰 것은 손가락만 하고, 작은 것은 젓가락만 했다. 깨끗하여 희고 투명한데, 생긴 모양이 대나무 순 같았다. 머리 부분은 뽕족하고 날카롭게 모두 여섯 모가 났는데, 하나하나가 가지런했다”⁹⁴⁾라고 했다. 주목되는 것은 수정의 형태에 관한 이수광의 탐구이다. 광물학적으로 수정은 석영과 같은 물질인데, 수정은 자연계에서 잘 성장하면 완벽한 육각기둥의 형태로 성장한다. 이수광은 수정의 형태를 대나무 순과 같고 여섯 모가 났다고 하여, 정확하게 수정의 결정형을 기록하고 있다. 李瀾의 『星湖僊說』에서도 金銀, 硫黃地霜, 銀礦, 自然石, 空靑, 寶石 등의 항목이 있어 광물과 관련한 단편적인 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⁹⁵⁾ 그러나 『성호사설』에 보이는 단편적인 지식은 광물과 관련한 고사나 당시의 사회 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광물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18세기 후반에는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名物學이 유행하면서 광물지식도 더불어 발전하였다.⁹⁶⁾ 이만영이 1798년에 저술한 『才物譜』는 만물을 天譜, 地譜, 人譜, 物譜로 분류하였는데, 광물은 地譜의 土, 金, 玉, 石에서 다루었다. 土는 여러 가지 흙의 명칭을 다룬 장으로 赤剛土, 堊, 甘土 등이 보인다. 金에서는 金, 銀, 銅, 鉛, 錫, 鐵 등 금속에 관한 명칭과 합금의 명칭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기물 등을 다루었다. 정약용이 저술한 『雅言覺非』는 권2에서 磬石, 瑱瑯의 명칭이 보이고, 권3에서 石灰, 金, 玉, 鋤의 명칭이 보인다. 총 6항목으로 제한적인 지식을 보여준다.⁹⁷⁾ 유희의 『물명고』는 ‘物’을 有情類, 無情類, 不動類, 不靜類로 분류하였는데, 不動類에서 다시 土, 石, 金으로 분류하여 광물을 다루었다.⁹⁸⁾ 土에서는 白堊과 赤土 등 여러 가지 흙에 대해서 다루었다. 『물명고』는 『재물보』와 다르게 石에서 玉도 같이 다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石에서는 총 82항목을 다루고 있고, 金에서는 13항목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책은 서유구의 『贍用志』⁹⁹⁾와 이규경의 『五洲書種博物考辨』이다. 『섬용

89) 이장천, 박맹언, 『東醫 藥用鑛物學』(의성당, 2009), 19쪽.

90)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 卷1, 土部.

91)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 卷3, 玉部·石部·金部.

92) 許浚, 『東醫寶鑑』, 湯液篇 卷3, 石部, 滑石.

93) 李睟光, 『芝峯類說』 卷19, 服用部, 金寶.

94) 李睟光, 『芝峯類說』 卷19, 服用部, 金寶.

95) 李瀾, 『星湖僊說』 卷4~6, 萬物門.

96) 김근수는 명물학과 관련한 책으로 『物名考』, 『五洲衍文長箋散稿』, 『茲山魚譜』, 『才物譜』, 『物譜』, 『物名攷』, 『萬物錄』 등이 있다고 했다. 김근수, 「한국실학과 명물도수학」(『정신문화』 12, 1982), 87쪽.

97) 丁若鏞, 『雅言覺非』 卷2~3.

98) 柳僖, 『物名攷』 卷5, 不動類.

99) 『섬용지』는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이라고 평가받는 서유구의 『林園經濟志』 가운데 하나의 志이다. 『임원경제지』는 서유구가 말년까지 교정한 저작이었는데, 1842년에 쓴 자신의 묘표에서 『임원경제지』를 완성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정명현 등, 『임원경제지: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씨앗을

지』는 건축·도구·일용품 제작·공업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으로, 그 가운데 광물지식은 주로 안료를 다루는 「設色之具」와 공업 기술을 다루는 「工制總纂」에서 확인된다. 「설색지구」는 총 23개의 항목을 두었는데, 그 가운데 광물성 안료는 15개의 항목이 보인다.¹⁰⁰⁾ 「공제총찬」은 「攻木」, 「攻金」, 「攻玉石」, 「埴埴」, 「治骨角皮革」, 「珠貝」, 「訓工」 7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攻金」, 「攻玉石」, 「珠貝」에서 광물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¹⁾

이규경이 1834년 완성한 『오주서종박물고변』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²⁾ 권1은 금속광물을 다루는 장으로 金·銀·銅과 黃銅類, 烏銅類, 白銅類, 靑銅類, 響銅類 등 여러 가지 습금 12종을 다루고 있다. 권2은 「五洲書種博物考辨 二局」이라는 표제가 붙여져 있고 玉石類로 시작하는 비금속광물과 石鏡類·眼鏡類·磁器類·陶窯類 등 가공품 23종을 다루고 있다. 권3은 水銀類와 그 밖의 몇 가지 광물 15종을 다루고 있다. 『오주서종박물고변』은 금속광물과 비금속광물 그리고 광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총 50종의 항목을 두어 광물에 대한 탐구를 보여준다.

Ⅲ.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전통은 다섯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詩經』과 『爾雅』의 감성적인 교감, ②『山海經』과 『博物志』의 괴이함에 대한 탐구, ③지리서의 체험적 지식, ④類書類의 종합적인 취합, ⑤본초서의 실용약재적 효용 등이 그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실용자원으로서 광물은 그것을 채취하던 산지나 그것을 활용하던 산업 현장에서 경험적이라고는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졌음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학문적 고찰을 통해 문자로 남겨지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결국 광물이 문자로 기록되어 하나의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관심을 받아야만 했다.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동아시아에서, 광물을 비롯한 자연물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심은 『시경』의 「多識」에서 시작되었다. 정학유가 자신의 저술을 『詩名多識』이라 명명한 것이나, 林羅山이 『본초강목』의 약재 명칭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그 서명을 『多識編』이라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¹⁰³⁾

광물지식의 관점에서, 『詩經』과 『爾雅』의 전통은 동물과 식물의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작다. 아마 공자의 말에서 「金石」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시경』에 나오는 동물과 식물의 종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 경전 연구의 한 분야가 되기도 하였지만,¹⁰⁴⁾ 금석에 대해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

뿌리는 사람, 2012), 223쪽.

100) 胡粉, 白堊, 硃砂, 倭朱, 代赭石, 石間朱, 紫粉, 黃丹, 雌黃, 石中黃, 石靑, 石綠, 銅靑, 乳金, 乳銀 등이다. 백색계열의 안료는 胡粉, 白堊과 2종, 적색계열의 안료는 硃砂, 倭朱, 代赭石, 石間朱, 紫粉 5종, 황색계열의 안료는 黃丹, 雌黃, 石中黃 3종, 청색계열 안료는 石靑 1종, 녹색계열 안료는 石綠, 銅靑 2종, 금색계열 안료는 乳金 1종, 은색계열 안료는 乳銀 1종으로 총 15종이다. 徐有渠, 『膳用志』 卷3, 設色之具.

101) 「攻金」은 총 41개의 항목을 두었는데, 금, 은, 동, 철 등 금속과 황동, 놋쇠 등 합금 등의 명칭과 산지, 형태, 성질, 용도, 채광방법, 제련방법, 합금방법 등을 주로 소개했다. 「攻玉石」은 총 25개의 항목을 두었다. 玉·水晶·金剛鑽·寶石·琉璃·石 등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珠貝」는 총 11개의 항목을 두었는데, 진주와 호박을 가공하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앞의 장들 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도자기에 대해 다룬 「埴埴」에서도 도자기의 원료나 안료 등으로 광물에 관련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 徐有渠, 『膳用志』 卷4, 工制總纂.

102) 이규경 저, 최주 역, 『오주서종박물고변』(학연문화사, 2008).

103)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 133~134쪽.

다. 그러나 광물지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경』에는 대략 5종의 광물이 보인다. 그 가운데 玉을 나타내거나 옥과 관련한 단어들이 다른 광물에 비해 다수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⁰⁵⁾ 공자가 “군자는 옥을 귀하게 여긴다”¹⁰⁶⁾고 말한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 옥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 상징과 연관이 깊을 것이다. 『이아』에 금석을 다루는 부분이 없다는 것도 이후의 주석서들로 하여금 금석을 다루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당대 梅彪의 『石藥爾雅』와 청대 方以智의 『通雅』는 광물을 직접 다루거나 ‘金石’ 부분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국적이고 괴이한 것에 대한 지적 탐구에서 비롯되는 『산해경』과 『박물지』의 전통은 광물에 대한 지식의 형성에 있어서 다른 전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어 보인다. 아마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광물지식의 특징도 그것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실지적인 지식을 탐구했던 方志를 비롯한 지리서의 전통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보여준다. 광물이나 실용적인 자원으로서 현지에 존재하는 광물에 대한 지식은 정부나 민간에게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方志를 살펴보면,¹⁰⁷⁾ 명대의 成化 『山西通志』에는 용도에 따라 土産을 분류했는데, 그 가운데 총 42종의 광물이 보인다. 내용으로는 광물의 명칭을 기재한 후 산지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청대의 雍正 『山西通志』는 지역을 구분하여 그곳에서 나는 物産을 기재하였다. 명대의 成化 『山西通志』는 土産에 대해서 간략한 산지만을 기록한 반면, 청대의 雍正 『山西通志』는 일부 광물에 관해서 그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나 색, 제련법 등을 기록하고 있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남겼다. 일본과 조선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리서에 物産으로서 광물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광범위한 서적에서 발췌한 기사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편집한 類書類의 책도 광물지식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준다. 당대의 『藝文類聚』는 『寶玉部』에서 7개의 항목으로 광물지식을 다루고 있지만, 송대의 『太平御覽』은 『珍寶部』에서 38개의 항목으로 광물지식을 다루고 있다. 이어 명말의 『삼재도회』에서는 60개의 항목이 실려 광물에 대한 지식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寶玉’이나 ‘珍寶’ 등 진귀한 보물의 하나로서 분류되어 다루어지던 광물은 청대에 편찬된 『고금도서집성』에서 동물이나 식물처럼 하나의 ‘部’로서 분류되었다. 분류방식에서 주목되는 것은 암석류는 方輿彙編의 坤輿典에서 여러 部로 분류되었고, 금속류나 보물류는 經濟彙編의 食貨典에서 여러 部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아마 금속류나 보물류는 암석류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에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和漢三才圖會』는 명말 王圻의 『삼재도회』가 간행되고 100여 년 뒤에 간행되었다. 『화한삼재도회』의 광물지식은 『삼재도회』보다 『본초강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우선 『삼재도회』의 광물지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재도회』는 ‘珍寶’에서 총 60종의 광물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증류본초』 玉石

104) 김영식, 『한국 전통과학의 배경』(들녘, 2021), 33~34쪽.

105) 옥을 나타내거나 옥과 관련한 단어로 瓊, 琇, 瑤, 玖, 璚, 瑰 등이 보인다. 그 가운데 琇, 瑤, 玖, 瑰에 대해 『康熙字典』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옥을 닮은 아름다운 돌이라는 설명이 있다. 이들 각각이 옥과는 다른 광물이라고 한다면, 광물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106) 정병섭 역, 『역주 예기집설대전 병의』(학고방, 2017), 382~383쪽.

107) 연구에 따르면 송대는 方志의 편찬이 번성하여 총 976종의 방지가 편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망실되었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29종뿐이다. 원대의 방지도 현재 전해지는 것이 11종뿐이다. 唐錫仁·楊文衡, 『中國科學技術史』 地學卷, 337~338쪽. 불안정한 통계에 따르면, 總志, 通志, 府志, 州志 등 현재까지 전해지는 명대 방지의 총 수량은 1017종이라고 한다. 唐錫仁·楊文衡, 『中國科學技術史』 地學卷, 404쪽.

部에 보이는 광물을 추려내어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다.¹⁰⁸⁾ 『화한삼재도회』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삼재도회』처럼 먼저 삽화를 보여보고 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본초강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가장 큰 특징은 광물의 분류방식이 변한 점이다. 전통적인 유서에서 광물은 ‘珍寶’나 ‘寶貨’ 등의 ‘部’나 ‘類’로 분류되어 다루어졌지만, 『화한삼재도회』는 『본초강목』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초강목』은 광물의 분류법을 玉石部에서 金石部로 바꾸고 金類·玉類·石類上·齒石類로 분류하였다. 寺島良安은 『凡例』에서 『본초강목』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기 때문에,¹⁰⁹⁾ 『화한삼재도회』도 그 분류법을 따랐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본초강목』 金石部の 광물지식을 ‘本綱’이라 표기하고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다. 『화한삼재도회』 金類의 서문이 『본초강목』 金石部の 서문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¹¹⁰⁾

조선의 광물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서류인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의 광물지식은 제한적이었지만, 명물학에서는 광물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인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광물에 대한 명칭을 비정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才物譜』의 銅 항목을 살펴보면, ‘赤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赤金이라 적고 한글로 구리라고 설명했다. 銅綠과 銅靑은 동의 표면에 생긴 녹(綠)이고, 銅落, 赤銅花銅粉銅砂, 鉛, 鏢는 동의 가루라고 했다. ‘吳都督’은 황동 가운데 좋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金牙’는 自然銅과 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¹¹¹⁾ 銅이 가지고 있는 별칭이나 그것과 관련한 명칭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발전에서 본초서의 광물지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명말 이시진의 『본초강목』은 이전까지의 본초서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약재를 분류하는 방법에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했다. 광물에 관해서는 ‘나라를 구제하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161종을 金石部에 모아 4종류로 분류하니 金, 玉, 石, 齒라고 한다. 【舊本에는 玉石部를 三品으로 분류하여 253종이었다. 지금 아울러 28종을 넣고, 32종을 옮겨 水部에 넣었고, 39종을 옮겨 土部에 넣었고, 3종을 옮겨 器部에 넣었고, 1종을 옮겨 介部에 넣었고, 1종을 옮겨 人部에 넣었다.】’라고 하여,¹¹²⁾ 총 160여 종의 광물성 약재를 소개했다. 각각의 광물에 대해서는 ‘釋名’, ‘集解’, ‘氣味’, ‘主治’, ‘發明’, ‘附方’의 들을 두어 광물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시도하였다. ‘釋名’에서는 광물의 이름을 해석하였고, ‘集解’에서는 광물의 산지, 형태, 물리성질, 감별방법 등을 밝혔다. ‘氣味’에서는 맛과 성질을, ‘主治’에서는 약효를 설명했다. ‘發明’에서는 본인의 견해를 달았고, ‘附方’에서는 약재의 조제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초강목의 이러한 광물지식은 조선과 일본에도 전해져 동아시아 본초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초강목』이 간행되고 14년이 지난 1610년에 허준의 『東醫寶鑑』이 완성되었다. 『동의보감』은 『본초강목』과 달리 임상을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湯液篇에 총 110종의 광물성 약재를 싣고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 이후에 조선에서는 두드러진 본초학의 성과를 찾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조선의 광물지식의 형성에 대해서 조선의 본초학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작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본초강목』의 전래 이후 본초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일본 본초학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貝原益軒의 『大和本草』는 1709년에 간행되었다. 권 3의 金玉土石에는 총 67종의 광물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和名을 기록한 광물은 11종이

108)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 323쪽.

109)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凡例」.

110) 李時珍, 『本草綱目』 卷8, 金石1, 目錄;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卷59, 金類, 目錄.

111) 李晚永, 『才物譜』 卷1, 金, 銅.

112) 李時珍, 『本草綱目』 卷8, 金石1, 目錄.

다.¹¹³⁾ 이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1806년에는 小野蘭山の『本草綱目啓蒙』이 완간되었다. 총 136종의 광물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일본의 광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주목된다. ‘金’을 예로 살펴보자. 먼저 금의 和名을 적고 따로 부르는 이름(一名)으로 漢名을 서술했다. 이어서 금에 관한 일본의 역사적 기록을 서술한 이후에 그 당시 佐渡와 薩摩, 松前와 伊予國 등 일본 각지의 金山과 砂金の 소재지 및 채굴법, 거기에서 발굴되는 금의 종류를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금의 품질이나 모양을 언급하고 제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¹¹⁴⁾ 더욱 주목되는 점은 한자가 아닌 일본어로 저술되었다는 점이다. 小野蘭山은 자신의 땅에서 나는 物産을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本草綱目啓蒙』은 일본 본초학의 완성으로 평가받는다. 본초학에서 형성된 광물지식의 측면에서, 일본은 자신들만의 광물지식을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중국 광물지식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¹¹⁵⁾

조선에서 주목할 만한 책은 서유구의 『臚用志』와 이규경의 『五洲書種博物考辨』이 있다. 서유구의 『섬용지』는 조선의 기술 분야를 다룬 책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지봉유설』과 『성호사설』에는 조선의 광업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수준에 대해 애석한 감정을 드러내었다.¹¹⁶⁾ 서유구도 『섬용지』에 이와 비슷한 감정을 언급하였다. 그는 “채광에서 제대로 된 기술이 없고 기름 짜는 데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에 의지하여 도움을 받게 되니, 북경과의 재화 교류와 대마도와의 무역이 이때문에 흥기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예부터 중화를 우러러 의지한 이유는 기술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임이 틀림없다”라고 하였다.¹¹⁷⁾ 즉 서유구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과 지식을 추구해 전반적인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섬용지』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 중 하나가 광물을 다루는 지식이었다.

이규경이 1834년에 완성한 『五洲書種博物考辨』은 조선시대 저술된 유일한 化學技術書라고 평가받는다.¹¹⁸⁾ 특히 이 책은 동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광물만을 단일 주제로 삼아 저술된 책이라 더욱 특별하다. 그의 다른 저작인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광물지식이 보이지만 광물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하여 저술된 이 책이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보여준다. 그가 이 책을 저술했던 이유는 서유구처럼 利用厚生적인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주된 목적은 광물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규경은 동아시아 광물지식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의 광물지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서명에 보이는 ‘博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은 『섬용지』보다 더 박물학적인 탐구를 보여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광물지식에 대한 이들의 탐구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아마 조선의 학문적 풍토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¹⁹⁾

113) 石膽, 木葉石, 菊メ石, スクモ, 黒土, ミガキ土, 人肌石, 備後砂, 天巧碁石, 饅頭石, 觀音石 등이다. 後閑文之助, 「日本の古代より近世に至る地質學と關連學の發達史(『地學雜誌』 88-2, 1979), 73쪽.

114) 小野蘭山, 『本草綱目啓蒙』 卷4, 金石1, 金. 『본초강목계몽』에 보이는 金石和名에 대해서는 吉野政治이 연구한 바 있다. 吉野政治, 『日本鑛物文化語彙攷』(和泉書院, 2018), 270~314쪽.

115) 大沢眞澄은 에도시대 광물지식이 본초학적인 金石・石藥에 대한 탐구와 弄石家와 好古趣味 등의 대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大沢眞澄, 「江戸時代, 鑛物に關する諸問題: 田村藍水, 平賀源内, シーボルト, ビュルガー, ポンペの事績を中心に」, 97쪽.

116) 『지봉유설』은 고려 때는 금을 채취하는 淘金法이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그 방법이 사라졌다고 했다. 『성호사설』에서는 銅을 제련하는 기술을 알지 못해 오로지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말하며, 그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李晬光, 『芝峯類說』 卷19, 服用部, 金寶; 李漢, 『星湖僊說』 卷8, 人事門, 生財.

117)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임원경제지 섬용지 1』(풍석문화재단, 2016), 85~87쪽.

118) 전상운, 「朝鮮時代 科學技術書 研究」(『誠信研究論文集』 14, 1981), 46쪽.

119) 김영식, 『한국 전통과학의 배경』, 25~34쪽.

이러한 지적 전통들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 이시진은 사람들이 시를 읽음으로써 초목의 이름과 유형들을 이미 알고 있음을 지적했다.¹²⁰⁾ 『본초강목』 역시 광물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아』를 인용하고 있다. 일본의 본초서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물지』에 보이는 藥物, 藥論 등은 본초학의 지식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方士는 연단술의 지식과 관련이 있다.¹²¹⁾ 청대의 雍正 『山西通志』는 광물을 설명하면서 『산해경』과 본초서 등을 인용했다. 『삼재도회』 광물지식은 『증류본초』의 광물지식에 기반하여 저술되었고, 『화한삼재도회』의 광물지식은 『본초강목』의 광물지식에 큰 영향을 받았다. 서유구의 『섬용지』는 중국의 『천공개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오주서종박물고변』은 『본초강목』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광물지식은 상호교류 속에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살펴보면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 글은 동아시아 광물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일한 한자 문화권으로서 조선과 일본의 광물지식은 중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동아시아 광물지식은 크게 5갈래의 박물학 전통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①『詩經』과 『爾雅』의 감성적인 교감, ②『山海經』과 『博物志』의 괴이함에 대한 탐구, ③지리서의 체험적 지식, ④類書類의 종합적인 취합, ⑤본초서의 실용약재적 효용 등이 그것이다.

『시경』의 ‘多識’은 자연물에 대한 지적 탐구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다만 실용가치를 중시하는 광물지식의 특성상 『시경』과 『이아』의 전통과 『산해경』의 전통은 다른 전통보다 그 영향이 적다. 지리서의 전통은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 공물이나 실용가치로의 광물 산지에 대한 지식은 국가에서 중요했기 때문이다. 유서류의 경우, 명말의 『삼재도회』나 청대의 『고금도서집성』을 살펴보면, 당송대에 비해 광물지식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금도서집성』은 이전의 유서들과 다르게 각각의 部를 두어 광물을 분류하였다. 중국의 광물지식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전통은 本草學이었다. 『신농본초경』으로부터 시작된 본초학의 광물지식은 명말 이시진의 『본초강목』에서 집대성되었다. 이후 『본초강목』의 광물지식은 조선과 일본의 광물지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 광물지식은 중국의 본초서가 유입되면서 크게 발전했다. 특히 17세기 초반에 전래된 『본초강목』은 일본 본초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초학이 번성하면서 일본 독자적인 본초서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18세기 초반에 간행된 『대화본초』는 일본 본초학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본초강목』에 다루지 않는 여러 광물을 소개하였다. 19세기 초반에 간행된 『본초강목 계몽』은 일본을 대상으로 탐구하여 일본 본초학의 독자성을 이루었다. 광물지식으로 한정하면, 일본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조선의 전통광물지식은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등의 지리서에서 지방의 土産이나 物産으로 광물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광물의

120) 김영식, 『한국 전통과학의 배경』, 33쪽.

121) 「物産」에서는 金, 玉, 鐵, 丹砂, 珠, 石脂, 玉膏, 「異産」에서는 石流黃, 「物理」에서는 鉛錫, 「物類」에서는 鉛錫, 丹朱(朱砂), 水銀, 玉, 雄黃, 硫黃이 보인다. 「藥草」에는 琥珀이 보이고, 「藥論」에서는 『神農本草經』을 인용해 上藥인 五石을 언급하고 있다. 五石은 도가에서 연단을 위해 사용하는 5종의 藥石으로 丹砂, 雄黃, 白礬, 曾青, 慈石이다. 「藥術」에서는 白石灰, 「戲術」에서는 石灰를 만드는 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張華 저, 김영식 역, 『박물지』(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명칭과 산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다루고 있기에, 광물 자체에 대한 박물학적 관심은 아니었다. 조선의 유서류에서는 제한적인 광물지식을 보여주지만,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나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보이는 이용후생의 관점은 이후 『섬용지』와 『오주서종박물고변』이 등장할 수 있게 한 토대가 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행한 명물학도 광물지식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섬용지』와 『오주서종박물고변』은 광물에 대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박물학적 관심을 보여준다. 특히 『오주서종박물고변』은 단일주제로 광물을 다루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유의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 광물지식이 이러한 전통들에서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 지성사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 徐有渠, 『瞻用志』; 柳僖, 『物名攷』; 李晔光, 『芝峯類說』; 李漢, 『星湖僊說』; 丁若鏞, 『雅言覺非』; 許浚, 『東醫寶鑑』; 『慶尙道續撰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輿地圖書』; 『鄉藥集成方』.
- 歐陽詢, 『藝文類聚』; 方以智, 『通雅』; 王圻, 『三才圖會』; 李昉, 『太平御覽』; 李時珍, 『本草綱目』; 『古今圖書集成』; 成化 『山西通志』; 雍正 『山西通志』.
- 林羅山, 『多識編』; 小野蘭山, 『本草綱目啓蒙』; 寺島良安, 『和漢三才圖會』; 中村惕齋, 『訓蒙圖彙』; 中村惕齋, 『頭書增補訓蒙圖彙』; 田村藍水, 『日本諸州藥譜』; 平賀源內, 『物類品隲』; 貝原益軒, 『大和本草』; 『會津風土記』; 『新編 會津風土記』.

2. 연구서

- 『校訂慶尙道地理志·慶尙道續撰地理志』(불함문화사, 1976).
- 김영식, 『한국 전통과학의 배경』(들녘, 2021).
- 박소동, 『역주 모시정의 1』(전통문화연구회, 2017).
- 박일봉 역주, 『論語』(육문사, 2000).
-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임원경제지 섬용지 1』(풍석문화재단, 2016).
- 이규경 저, 최주 역, 『오주서종박물고변』(학연문화사, 2008).
- 이장천, 박맹언, 『東醫 藥用鑛物學』(의성당, 2009).
- 임동석, 『시경 4』(동서문화사, 2020).
- 張華 저, 김영식 역, 『박물지』(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 정병섭 역, 『역주 예기집설대전 병의』(학고방, 2017).
- 정재서 역주, 『산해경』(민음사, 1996).
- 허신 저, 금하연, 오채금 엮음, 『허신 설문해자』(자유문고, 2016).
- 唐錫仁·楊文衡, 『中國科學技術史』 地學卷(科學出版社, 2000).
- 李約瑟 著, 陳立夫 主譯, 『中國之科學與文明 第6冊(氣象學, 地理學, 地圖學, 地質學, 地震學, 礦物學)』(臺灣商務印書館, 1980).
- 潘吉星, 『中外科學之交流』(中文大學出版社, 1993).
- 王根元·劉昭民·王昶, 『中國古代礦物知識』(化學工業出版社, 2011).
- 程俊英, 『圖文本詩經譯注』 上·下冊(上海古籍出版社, 2006).
- 崔雲昊, 『中國近現代鑛物學史』(科學出版社, 1995).
- 韓汝玢·柯俊, 『中國科學技術史』 礦冶卷(科學出版社, 2007).
- 吉野政治, 『日本鑛物文化語彙攷』(和泉書院, 2018).
- 杉本 つとむ, 『江戸の博物学者たち』(講談社, 2006).
- 上野益三, 『日本博物學史』(講談社, 1989).
- 矢部一郎, 『江戸の本草: 藥物學と博物學』(サイエンス社, 1984).
- 土井康弘, 『本草學者 平賀源內』(講談社, 2008).

3. 연구논문

- 김근수, 「한국실학과 명물도수학」(『정신문화』 12, 1982).
-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명청사연구』 41, 2014).
- 김문기, 「근세 동아시아의 魚圖와 어류박물학: 『詩經』과 『山海經』을 중심으로」(『역사와 경계』 105, 2017).
- 김현철, 「中國 歷代 訓古學의 繼承 關係 研究: 『爾雅』와 '雅學'類 書籍을 중심으로」(『중국학 논총』 4, 1995).
- 서종태, 「『輿地圖書』의 物産 조항 연구」(『한국사학보』 25, 2006).
- 안상우, 「본초서의 계통과 본초학 발전사」(『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1, 2005).
- 전상운, 「朝鮮時代 科學技術書 研究」(『誠信研究論文集』 14, 1981).
- 정두희,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1」(『역사학보』 69, 1976).
- 정두희,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2」(『역사학보』 70, 1976).
- 정명현 등, 『임원경제지: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 최정임, 「불교의 보석론」, 『불교문예연구』 8(2017).
- 尙志鈞, 「梁·陶弘景『本草經集注』對本草學的貢獻」(『北京中醫藥大學學報』 22, 1999).
- 周瀚光·賀聖迪, 「我國十七世紀的一部百科全書: 方以智의『物理小識』」(『中國科技史料』 7, 1986).
- 吉野政治, 「『金類』から『金屬』へ」(『総合文化研究所紀要』 33, 2016).
- 吉野政治, 「金石學と鑛物學: 氷は鑛物か」(『同志社國文學』 81, 2014).
- 大沢眞澄, 「江戸時代, 鑛物に關する諸問題: 田村藍水, 平賀源内, シーボルト, ビュルガー, ポンペの事績を中心に」(『日本醫史學雜誌』 54, 2008).
- 田崎公司, 「『新編 會津風土記』と由緒: 大槻太郎左衛門の亂を事例に」(『大阪商業大學論集』 15, 2019).
- 田賀井篤平, 橘由里香, 「シーボルト鑛物標本と江戸時代時代の鑛物學」(『日本鑛物學會年會・日本巖石鑛物鑛床日本學會學術講演會講演要旨集』 2004, 2004).
- 後閑文之助, 「日本の古代より近世に至る地質學と關連學の發達史」(『地學雜誌』 88-2, 1979).

「동아시아 광물지식의 전통」 토론문

여 민 주 (부산대학교)

본 발표문은 중국·일본·조선 동아시아 3국의 광물지식에 대한 사료 분석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검토하면서 동아시아 3국의 광물지식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국내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의 광물지식에 대한 연구만 존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3국의 광물지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광물지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3국의 광물지식을 5갈래의 박물학의 전통에 따라 정리하여 동아시아 광물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의 광물지식에 대한 단독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섬용지』와 『오주서종박물고변』의 광물지식에 주목한 것은 연구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생긴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국내학계에서 광물지식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유

선행 연구와 관련되어 국내학계에서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의 전통적인 광물 지식에 대한 관심으로 몇몇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국내학계에서는 광물지식에 대한 연구를 찾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학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국내학계에서 아직까지 광물지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다면, 중국, 일본, 조선의 광물지식을 규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2장의 2절 일본의 광물지식에서 『시경』과 『산해경』에 대한 내용의 부재 이유

김문기의 해양어류지식을 연구하면서 제시한 5갈래의 박물학 전통을 중국·일본·조선의 광물지식에 적용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시경』과 『산해경』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리서·유서류·본초학에 대한 내용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광물지식에서는 조선의 광물지식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시경』과 『산해경』에 대한 탐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18세기 후반에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명물학이 유행하면서 광물지식도 더불어 발전하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광물지식이 발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명물학이 발전하면서 ‘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주변의 다양한 사물 중 하나였던 광물에 집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수공업이 발달하고 은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광물 수요가 늘어나 광산 개발이 활발해졌는데, 이러한 상황과도 맞물려서 광물지식 또한 발전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상황 외에 다른 사회경제적인 이유와도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이규경의 『오주서종박물고변』의 주된 목적은 광물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규경이 광물 탐구에 집중했는지 궁금합니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섬용지』에서도 광물지식을 다루었다고 하지만, 생활용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재료로써 광물지식을 다루고 있을 뿐, 광물 그 자체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규경은 광물만을 단일 주제로한 『오주서종박물고변』을 저술했는데, 왜 이규경은 광물만을 단일 주제로 책을 저술하고자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동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광물에 대한 단일 주제로 저술된 이규경의 『오주서종박물고변』의 의미가 한층 더 강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섬용지』와 『오주서종박물고변』이 인용한 책이 다른 이유

『섬용지』의 경우 『천공개물』, 『오주서종박물고변』은 『본초강목』에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책이 비슷한 시기에 저술되었지만, 영향을 받은 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대화본초』에서 『천공개물』을 많이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초강목』이 모든 물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초강목』 이외의 많은 책에 더 다양하고 많은 물품이 실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화본초』처럼 『섬용지』와 『오주서종박물고변』이 각각 『천공개물』과 『본초강목』을 인용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3장이 2장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3국의 광물지식의 각각의 특징이나 차이점, 공통점 등을 좀 더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 토스카나 대공국의 계몽주의 개혁과 피에타 보호소

변 선 경 (피사대학교)

목 차

- I. 머리말
- II. 계몽주의 개혁 이전의 토스카나 대공국
- III. 피에타 보호소와 지역적 종교 전통과의 단절
- IV. 맺음말

I. 머리말

18세기 유럽을 휩쓴 계몽주의는 개혁의 시대를 불러왔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등 일부 유럽 군주는 이성애 입각해 편견, 미신, 인습, 특권과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사회를 개혁하려는 계몽주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스스로 계몽 군주를 자처하였다. 이처럼 계몽 군주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개혁은 귀족과 성직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군주의 절대권에 기여했기 때문에 계몽 절대주의(l'assolutismo illuminato)라고 불리기도 한다. 토스카나 대공국에서는 잔 가스토네(Gian Gastone, 1671-1737)를 마지막으로 메디치 가문의 혈통이 끊기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문(Habsburg-Lothringen)이 대공위를 잇게 되면서 계몽주의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토스카나에서 본격적인 개혁은 1765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 프란츠 슈테판 1세(Franz I. Stephan, 1708-1765)가 사망하고 삼남 피에트로 레오폴도(Pietro Leopoldo, 1747-1792)가 토스카나 대공에 오르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를 따라 계몽군주로서 토스카나의 경제, 정치, 종교,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를 거쳐 개혁을 추진하였다.¹⁾

토스카나 대공국의 계몽주의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585년 3월 21일 공포된 종교단체의 철폐 조치였다. 토스카나의 수도인 피렌체에서 종교단체의 철폐(Soppressione corporazioni religiose)는 중세에도 종종 이루어졌지만 일시적 조치에 그쳤고, 레오폴도의

1) 유럽의 계몽 절대주의에 대해서는 M. Bazzoli, *Il pensiero politico dell'assolutismo illuminato* (Firenze: La Nuova Italia, 1986); T. Schieder, *Federico il Grande* (Milano: Garzanti, 1988); J. P. Lbed, *Maria teresa d'Autria* (Bologna: Il Mulno, 2003); B. Sordi, *L'amministrazione illuminata: riforma della comunità e progetti di costituzione nella Toscana leopoldina* (Milano: Giuffrè, 1991); G. Ricuperati, *L'Italia del Settecento. Crisi, trasformazioni, Lumi* (Roma-Bari: Laterza, 2008). 18세기 토스카나 계몽주의 운동에 대한 가장 최근의 종합 연구서는 Corey Tazzara, Paula Findlen and Jacob Soll, *Florence After the Medici: Tuscan Enlightenment, 1737-1790*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20).

경우처럼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는 계몽주의 개혁을 말미암아 토스카나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도래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레오폴도의 철폐 조치 대상에는 자선기관, 형제회, 수녀원 등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수녀원은 대부분의 경우 당시 전통적으로 여성 교육을 담당했던 보호소(*conservatorio*)로 전환되었다. 교육사 분야는 이러한 레오폴도의 개혁에 주목하여 당시 대공의 법령과 규정의 분석을 통해 근대적 여학교의 등장을 설명하는 한편 당시 여성 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여성 교육 개혁에 대한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의도를 추론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레오폴도의 개혁기에 레오폴도의 개혁이 모든 기관의 교육을 국가에 의해 표준화하기 위해 근대적이고 선진적인 교육학에 기반을 둔 여성 공교육 시스템이 출범했다고 보며, 여성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와 달리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한편 건실하고 독실한 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 어머니를 길러내기 위해 여성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여성에게 국가의 보호 아래 문화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석한다.²⁾

그러나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계몽주의 개혁에 대한 당시 토스카나 시민들의 반응은 그와 같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례로 미신을 타파하고 성인과 성물에 대한 숭배를 일소하기 위해 프라토 대성당에서 도시의 성물을 치워버리려 한다는 소문에 반발하여 1787년 5월 20일 일어난 프라토 봉기(*il tumulto di Prato*)는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계몽주의 개혁과 지역의 전통적인 신앙의 충돌이면서 시민의 저항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었다.³⁾ 그리고 아마도 18세기 여성 교육 개혁의 핵심인 보호소(*conservatorio*)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저항이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레오폴도의 철폐 조치로 수녀원에서 전환된 보호소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다른 보호소들 역시 종교 교단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레오폴도가 토스카나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에 철폐되고 개혁되었던 많은 수녀원과 보호소가 이전의 형태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이러한 저항이 레오폴도 시기 보호소의 교육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했을 것 같지는 않다. 커리큘럼에 세부적인 변화는 있었을지언정 경건한 어머니의 양성하려는 레오폴도의 목적에 따라 개혁된 보호소 내에서도 그리스도교 교리 교육은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⁴⁾

2) Donatella Balani e Marina Roggero, *La scuola in Italia dalla controriforma all'età dei lumi* (Torino: Loescher, 1976); Marta Pieroni Francini, "L'istruzione femminile nella Toscana di Pietro Leopoldo," *Dimensioni e problemi della ricerca storica* 2 (1991), pp. 8-10; Carlo Fantappiè, "I conservatori toscani nell'età di Pietro Leopoldo. Genesi e significato dell'Istituto," *Annali di storia dell'educazione e delle istituzioni scolastiche* 2 (1995), pp. 39-57; Filippo Sani, *Collegi, Seminari e Conservatori nella Toscana di Pietro Leopoldo. Tra progetto pedagogico e governo della società* (Brescia: LaScuola, 2001), pp. 216-244; Angelo Bianchi, "Educande, collegi e conservatori per l'educazione femminile tra Sette e Ottocento" in *Dai collegi medievali alle residenze universitarie*, a cura di Gian Paolo Brizzi e Antonello Mattone (Bologna: Clueb, 2010), pp. 105-106; Teresa Calogero, *Scuole e Comunità nella Toscana di Pietro Leopoldo*, con Prefazione di Riccardo Nencini e Introduzione di Luigi Lotti, Vol. I (Firenze: Regione Toscana, 2010), pp. 144-158.

3) Giampiero Guarducci, "Scipione de' Ricci nella Toscana delle riforme leopoldine: Una storia nella cronaca," *Archivio storico pratese* 83 (2007), pp. 6-22. 레오폴도의 개혁 조치에 대해 그 외 지역의 저항에 대한 설명은 Ivano Tognarini e Francesco Mineccia, "Tumulti urbani nella Toscana di Pietro Leopoldo" in *Criminalità e società in età moderna*, a cura di Luigi Berlinguer e Floriana Colao (Milano: Giuffrè, 1991), pp.167-228; Francesco Mineccia, "Maggio 1774: tumulti a Firenze contro la polizia" in *Portale Storia di Firenze* (2018. 5): <https://www.storiadifirenze.org/?temademese=maggio-1774-tumulti-a-firenze-contro-la-polizia> (마지막 접속일자: 2022. 04. 10).

4) Janifer Haraguci, *Istruzione alle maestre* (Instruction for Teachers): A Model Text for

그렇다면 무엇이 계몽주의 개혁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보호소들이 복고적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계몽주의 개혁 이전의 토스카나 대공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레오폴도 개혁 시기의 보호소에서 취해진 여러 조치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사례로 선택한 보호소는 피에타 보호소(*conservatorio della Pietà*)이다. 1554년 설립된 피에타 보호소는 피렌체에서 소녀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소가 등장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세워졌던 초기 보호소 중 하나로 도메니코회 소속의 준종교 공동체인 제3회로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18세기 계몽주의 개혁을 겪었고 종내에는 다시 제3회 공동체로 복고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에타 보호소에서 나타났던 계몽주의 개혁 조치를 살펴봄으로써 18세기 토스카나의 계몽주의 정책을 당시의 반응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II. 계몽주의 개혁 이전의 토스카나 대공국

토스카나 대공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메디치 가문의 통치는 잔 가스토네의 후사 없는 죽음과 그의 누나 안나 마리아 프란체스카(*Anna Maria Francesca*)의 대공위 계승의 좌절로 끝을 맺었다. 공석이 된 토스카나 대공의 자리를 이은 것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로트링겐 공작 프란츠 슈테판의 결혼으로 형성된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문이었다. 프란츠 슈테판은 로트링겐 공국을 프랑스로 넘기는 대신 토스카나 대공국을 받아 1737년 토스카나 대공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1739년 피렌체를 3달간 방문한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기간을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인 비엔나에 머물렀고 토스카나 대공국은 섭정 위원회(*Consiglio della Reggenza lorenese*)에 의해 통치되었다. 그리고 1765년 프란츠 슈테판이 죽자 그의 뒤를 이은 피에트로 레오폴도는 아버지와 달리 토스카나에서 직접 통치를 펼치고자 하였다.⁵⁾

하지만 외국 출신의 군주에게 토스카나는 너무 낯선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메디치 가문의 통치 시절부터 이어진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토스카나에서 토착귀족들의 특권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상업적 제약, 과도한 부채 등을 맞닥뜨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레오폴도를 당혹스럽게 했던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는 토스카나 대공위를 잇기 위해 처음 토스카나에 도착했을 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토스카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수녀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것이 어떤 편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소녀들이 집에서 어떠한 자유도 갖지 못한다는 기인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결혼을 하거나 수녀가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 너무 높아 가족 중 보통 한 사람만 결혼할 수 있다.⁶⁾

1765년 당시 토스카나 주민 945,063명 중 9,349명이 수녀였는데, 이는 총 인구의 약 100분의 1에 달하는 수였다. 따라서 레오폴도가 토스카나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문제가 지나치게 많은 수의 수녀였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⁷⁾ 레오폴도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일이

Women's Lay Conservatories in Seventeenth-and Eighteenth-Century Tuscany," *Early Modern Women: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0.2 (2016), pp. 12-20.

5) Gaetano Greco, *Storia del Granducato di Toscana*, pp. 231-251.

6) Biblioteca Moreniana di Firenze, *Manoscritti Frullani*, 41, c. 175v.

7) Marcella Falchi, *Politiche ed attività educative in Toscana nel periodo leopoldino: Il caso*

발생한 이유에는 지참금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지참금이 필요했고, 수녀원에 들어가는 데에는 결혼 지참금보다 적은 금액이 들었다. 따라서 많은 가족이 가문의 부 유출을 조절하고 전략적인 재산 분배를 위해 많은 딸을 수녀원으로 보냈던 것이다.⁸⁾ 그러나 레오폴도가 지적했듯이 수녀원은 또 다른 사치와 과시의 근원지였다. 수녀원에 정식으로 서원을 하고 베일을 쓰는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 수녀원이나 보호소를 들어가기 위한 지참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다. 피에타 보호소 연대기에 따르면, 제3회 입회를 위해 1637년에는 300 스쿠도가 요구되었지만, 1658년에는 그 2배인 600 스쿠도가 요구되었다.⁹⁾ 따라서 대공의 입장에서는 많은 여성이 수녀원에 들어갈수록 많은 부가 교회의 재산으로 넘어가게 두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에트로 레오폴도가 토스카나에서 계몽주의 개혁을 진행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문제는 '종교'였다. 그는 토스카나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악습의 근원에 종교가 있으므로 이를 개혁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거의 모든 소녀들이 하인으로부터 혹은 수녀원에서 받게 되는 나쁜 교육, [...] 과한 자유, 일반적으로 가족과 결혼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결속과 온정이 결여되는 원인인 주변을 둘러싼 나쁜 친구, 게임들 [...],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욕망, 모든 계층의 여성에게 지배적인 과한 사치는[...] 방종의 원인이 된다. 이것의 결과는 매우 유해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오로지 이익에만 매달려 인성을 잔인하게 만들고 타락시켜 남편과 부인 사이, 부모 사이, 가족 사이의 유대와 평판을 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¹⁰⁾

피에트로 레오폴도는 토스카나의 뿌리 깊은 종교적 관행이 토스카나 대공국을 병들게 하고, 많은 소녀들을 수녀로 만듦으로써 교회가 사회로부터 홀쭉하고 근면한 가정의 어머니를 앗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부를 교회로 유출시킨다고 믿었다. 이러한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1785년 3월 21일 피에트로 레오폴도는 대공국 내의 종교단체의 철폐를 명령하는 자의교서(II motuproprio)를 발표했고 수녀들에게 수녀원 형태 결정을 촉구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100개가 넘는 수도원이 문을 닫았다. 1767년에는 237개였던 수도원이 1786년에는 83개의 세속 보호소(conservatori di cittadine)가 109개의 철폐 수도원을 대신하면서 128개의 수

dei Conservatori di Lucignano e Foiano della Chiana (Roma: Bulzoni, 2001), p. 79.

8) 1348년 우베르티니 페토는 “내 딸들이 결혼을 한다면 400 피오리노를, 수녀가 된다면 225 피오리노를 각각 지참금을 준다”고 유언을 남겼다. Ubertini Fetto, “The Testament of Fetto Ubertini, 1348” in *The Society of Renaissance History: A Documentary Study*, ed. Gene Brucker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899), p. 50. 15세기 지참금 인플레이션을 겪은 피렌체에서는 수녀원의 비교적 저렴한 지참금 때문에 수녀의 인구가 1368년에서 1470년 약 100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1581년 베네치아에서는 귀족 여성의 5분의 3이 수녀원에 들어갔다. Stanley Chojnacki, “Daughters and Oligarchs: Gender and the Early Renaissance State” in *Gender and Society in Renaissance Italy*, eds. Judith C. Brown and Robert C. Davis (New York: Longman, 1998), pp. 63-86. 지참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완화되지 않았고, 지참금 제공의 부담으로 인해 늘어난 여아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16세기 중반부터 ‘보호소’(conservatorio)가 등장한 바 있었다. 이러한 보호소는 버려진 여아를 수용하여 지참금을 스스로 모을 수 있도록 가사 노동 혹은 섬유업 등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Nicholas Terpstra, “Mothers, sisters, and daughters: girls and conservatory guardianship in late Renaissance Florence,” *Renaissance Studies* 17.2 (2003), pp. 201-229.

9) B.M.F, *Acquisti diversi*, 93, c. 29r.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지참금 관련 언급과 해당 개혁에 대해서는 Pietro Leopoldo, *Relazioni sul governo della Toscana*, vol. I, a cura di Arnaldo Salvestrini (Firenze: Leo S. Olschki Editore, 1969), pp. 216-218.

10) Leopoldo, *Relazioni sul governo della Toscana*, vol. I., pp. 6-7.

도원만 남게 되었다.¹¹⁾ 그러나 종교 관행을 토스카나 대공국에서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을 하기 이전에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 조치는 종교단체 철폐보다는 좀 더 점진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III. 피에타 보호소와 지역적 종교 전통과의 단절

피에트로 레오폴도가 토스카나 대공위를 잇기 전 토스카나 대공국은 섭정정부의 통치 아래 있었다. 대공이었던 프란츠 슈테판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비엔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계몽주의 개혁은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특별한 계기 없이는 개입하지 않았던 섭정정부가 1746년 피에타 보호소의 내부 개혁에 참여한 이유는 1745년 보호소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 보호소의 일부 소녀가 섭정 정부에 편지와 서명을 보냈기 때문이다. 1554년 설립된 피에타 보호소는 1808년 폐쇄되기 전까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거쳐 왔는데, 오랫동안 제3회 공동체로 도메니코회의 지도 아래 있던 피에타 보호소가 1686년 코지모 3세 시기에 대공의 직접 보호 아래 들어갔지만 이 시기 피에타 보호소의 몇몇 소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생활을 하는 청빈 서원을 하려 했던 것이다. 비록 소극적인 섭정 정부였지만 피에타 보호소가 자신들의 권한을 이탈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으므로 정부는 보호소의 세속적 성격을 주장하면서 피에타 보호소의 갈등에 개입해 보호소의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¹²⁾

그 결과 피에타 보호소를 후원하는 단체인 피에타회(compagnia della Pietà)의 수장인 총괄 수녀원장(piora generale)가 사라지고 대공의 명령에 따라 보호소를 관리하는 남성 귀족 관리인(operaio)이 보호소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비록 연대기에서는 섭정 정부의 개입과 개혁 이후 당시 총괄 수녀원장인 카테리나 델치 살비아티(Caterina D'Elci Salvati)가 병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물러났다고 적고 있지만,¹³⁾ 정황상 섭정 정부의 압력 탓에 강제로 물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총괄 수녀원장은 수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평신도 신분의 귀족 여성이었고, 보호소를 수녀원화하려는 움직임에 동의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소의 세속적 지위를 옹호하는 주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섭정정부가 이러한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당시 피렌체에서는 한

11) 수녀원을 세속 보호소로 전환하라는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법령문에 대해서는 “Bandi e Ordini, XII, 21 marzo 1785,” in *Le soppressioni dei Conventi a Firenze. Riuso e trasformazioni dal sec. XVIII in poi*, a cura di Osanna Fantozzi Micali e Piero Roselli (Firenze: Libreria Editrice Fiorentina, 1980), pp. 279-280. 레오폴도 시기 새로운 보호소에 대한 일반 규정에 대해서는 “Bandi e Ordini, XII, CXXXIX, 6 settembre 1785” in *Le soppressioni dei Conventi a Firenze*, pp. 283-290. 1785년 3월 21일 조치로 철폐된 수녀원과 존속한 수녀원의 목록은 Leopoldo, *Relazioni sul governo della Toscana*, vol. I., pp. 222-223, pp. 233-234. 레오폴도 철폐 조치에 대해서는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Ludovica Serbregondi, “La soppressione delle confraternite fiorentine: la dispersione di un patrimonio” in *Studi in onore di Arnaldo D'Addario*, vol. III, a cura di Luigi Borgia, Francesco de Luca, Paolo Viti, Raffaella Maria Zaccaria (Lecce: Conte Editore, 1995), pp. 1041-1049; Konrad Eisenbichler, “The Suppression of confraternities in Enlightenment Florence” in *The Politics of Ritual Kinship: Confraternities and Social Order in Early Modern Italy*, ed. Nicholas Terpstr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p. 262-278.

12) 피에타 보호소의 갈등과 섭정정부의 개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salia Manno Tolu, “Le fanciulle del Conservatorio della Pietà di Firenze dai Medici ai Lorenz”, pp. 186-193.

13) B.M.F, *Acquisti diversi*, 93, c. 41r.

가문이 오랫동안 수녀원이나 자선기관에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피에타 보호소 역시 살비아티 가문과 오랫동안 연관을 맺어왔다. 살비아티 가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프라토의 성녀 카테리나 데 리치의 두건이 피에타 보호소에 성물로 기증된 이후 1624년 7월 23일 총괄 수녀원장으로 선출된 라우라 살비아티 베라르디(Laura Salviati Berardi)를 시작으로 살비아티 가문과 관련된 여성들은 피에타 보호소에서 여러 번 총괄 수녀원장직을 역임해 왔다.¹⁴⁾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섭정 정부가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총괄 수녀원장직을 없애고 남성 귀족 관리인을 두는 개혁을 단행한 것은 피렌체 귀족 여성과 피에타 보호소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를 끊어 내고, 궁정의 명령을 받는 관리인을 통해 보호소를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고 운영하겠다는 의미였다.

피에타 보호소 연대기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조치는 장례 개혁이다. 1784년 피에트로 레오폴도는 사망한 자들의 시신을 수도원이 아닌 성문에서 3마일 떨어진 공동묘지에 매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¹⁵⁾ 174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되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점차 이탈리아에서도 시행된 교회 매장 금지와 장례의 교외화 조치는 1700년대 중반부터 교회와 정착촌 내 매장에 대한 오름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인구 증가와 도시 내 개발과 맞물려 있는 동시에 교회 매장이라는 특정인의 특권을 없앴으로써 매장의 평등을 실현하고 장례를 균질화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¹⁶⁾

그러나 한편으로 죽은 자의 시신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에 따라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 교회 매장은 해당 인물과 교회 사이의 유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피에타 보호소는 보호소와 관련된 몇몇 여성이 묻힌 곳에 대해서 언급하는 초기 상주 수녀원장이었던 알레잔드라가 1583년 사망하여 산 마르코 수도원에 묻혔으며, 산 마르코 수도원 소속 수사인 게라르도 피암민고(Fra Gherardo Fiammingo)가 보호소의 고해신부였을 당시 그의 지도에 따라 비전을 보고 기적을 행했던 성녀 안토니나 델 프라테(Antonina del Frate) 역시 1638년 사망하여 산 마르코 수도원에 묻혔다. 또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수도원 소속의 도메니코회 수사로 역시 피에타 보호소의 고해신부를 맡았던 알레잔드로 카포키(Fra Alessandro Capocchi)의 지팡이를 보호소로 가져온 소녀 피암메타(Fiammetta)는 카포키 수사가 묻힌 산타 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에 묻혔다.¹⁷⁾ 이는 피에타 보호소와 산 마르코 수도원,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카포키 수사와의 내세를 넘어 이어지는 강한 유대를 의미했다. 따라서 더 이상 피에타 보호소의 소녀들이 교회 내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은 피에타 보호소의 소녀들과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정서적 관계와 영속적인 유대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1785년 3월 21일 종교단체의 철폐 법령이 공포되기 전인 1783년 레오폴도는 피에타 보호소에 부동산을 정리할 것을 명령했다. 비록 이 시기 여성 교육 개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레오폴도의 계몽주의 개혁이 여성 교육을 교회 제도로부터 해방함으로써 국가가 성직자의 개입을 제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피에타 보호소 연대기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정리 명령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레오폴도 정부가 보호소에 대한 무조

14) 이후 프란체스카 루첼라이 살비아티(Francesca Rucellai Salviati), 카테리나 스트로치 살비아티(Caterina Strozzi Salviati)가 차례로 피에타 보호소의 총괄 수녀원장을 맡아왔다. B.M.F, *Acquisti diversi*, 93, c. 23r, c. 23v, c. 201v. 프란체스카 루첼라이 살비아티의 이름은 연대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카테리나 델치 살비아티의 이름은 1730년 기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c. 39v.

15) B.M.F, *Acquisti diversi*, 93, c. 43v.

16) Hannah Malone, *Architecture, Death and Nationhood: Monumental Cemeteries of Nineteenth-Century Italy* (New York: Routledge, 2017), chap. 1.

17) B.M.F, *Acquisti diversi*, 93, c. 190r, c. 140v, c. 135v.

건적인 보호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피에타 보호소는 레오폴도의 개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기관의 존폐 위협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었다. 아직 메디치 가문이 토스카나 대공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대공 잔 가스토네가 새로운 보호소를 열기 위해 피에타 보호소와 같은 소녀들을 위한 보호소 3곳과 수녀원을 철폐해 새로운 보호소에 자산을 통합시켰던 것이다.¹⁸⁾ 이러한 사실은 대공의 보호 아래 있는 세속 보호소 형태의 피에타 보호소가 대공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철폐될 위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1737년 잔 가스토네가 사망하고, 외국인 군주 프란츠 슈테판이 대공위를 물려받은 다음 해에 피에타 보호소가 새롭게 발굴한 오래된 연대기를 필사하면서 제3회 공동체로서의 오랜 전통을 주장하고 연대기 말미에 자신들의 보호소를 빼앗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¹⁹⁾

이와 같이 토스카나 지역과 기존의 종교관행과 유대를 끊으려는 계몽주의 개혁은 곧 저항에 부딪혔다. 토스카나 대공국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났던 1790년 레오폴도는 요절한 자신의 형을 이어 신성로마 황제의 관을 받기 위해 토스카나를 떠나고 그의 아들 페르디난도 3세(Ferdinando III)가 대공위를 계승하자 토스카나는 좀 더 온건한 통치 정부의 손에 넘겨졌다. 1792년 새로운 대공 페르디난도 3세는 자신의 아버지의 종교단체 철폐 조치를 뒤집고 이전에 몰수했던 부와 특권을 되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철폐된 종교 단체의 재건을 허락했다.²⁰⁾ 1796년 8월 15일 피에타 보호소 연대기에 자세히 기록된 도메니코회 제3회 서원식과 1803년 5월 12일 도메니코회 교단 총장 발타자르 데 퀴노네즈(Bartasar de Quinonez)의 보호소 방문과 축복 내린 일에 대한 희망 찬 기록은 기존의 종교 관행으로의 복귀와 계몽주의 개혁에 대한 저항의 승리를 의미하는 듯했다.²¹⁾

IV. 맺음말

여성 교육에 대한 수도원의 독점을 깨기 위해 수녀원을 철폐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창설하려던 토스카나 계몽주의 개혁의 움직임은 토스카나에서 기존의 종교 관행과 유대를 단절시키려는 개혁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계몽주의 개혁을 무신론적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를 합리적으로 개혁한다는 계몽주의 사상이 반드시 종교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토니오 무라토리(Antonio Muratori)나 체자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와 같은 당시 이탈리아의 계몽주의 사상가들 역시 계몽된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교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폼페오 네리(Pompeo Neri)와 피에트로 잔노네(Pietro Giannone) 등은 그러한 그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곁에서 계몽주의 개혁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토스카나에서 종교에 대한 계몽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피에트로 레오폴도 역시도 계몽군주로서 스스로를 신에 대한 책무가 있는 종교 개혁자로 생각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와 분리된 국교회의 수장이 되려 하였다.²²⁾

18) Luigi Cajani, "L'assistenza ai poveri nella Toscana Settecentesca" in *Timore e Carità. I Poveri nell'Italia Moderna. Atti del convegno «Pauperismo e assistenza negli antichi stati italiani»* (Cremona, 28-30 marzo 1980), a cura di Giorgio Politi, Mario Rosa, Franco della Peruta (Cremona: Biblioteca statle, 1982), pp. 188-189.

19) B.M.F, *Acquisti diversi*, 93, c. 202r

20) Eisenbichler, "The Suppression of confraternities in Enlightenment Florence," p. 278.

21) B.M.F, *Acquisti diversi*, 93, c. 44v, c. 45r.

따라서 토스카나의 계몽주의자들은 사회를 개혁하고 토스카나 시민 사회에 깊이 연관된 기존의 종교 관행과 유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기존의 종교적 가부장제 아래 있었던 소녀들을 세속, 즉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제 아래로 데려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보호 아래 들어온 소녀들은 기초적인 교리 교육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성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공 학교에서 교육 받아 남편을 내조하고 효율적으로 가사를 처리하며 경건하고 양심적인 시민이 될 아이를 양육하는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부인이자 어머니가 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종교에 대한 계몽주의 개혁은 격렬한 저항을 가져왔다. 일반 대중들과 지역 성직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전통 관행과 유대를 파괴하는 개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토스카나 대공국의 과거 유산을 끊어버리려는 외국인 군주들을 자신들의 ‘진정한 신앙’을 없애려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며, 토스카나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착취적 조치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눈에 계몽 군주의 개혁은 이전의 메디치 정부에 비해 더 단호하며 강압적이었으며, 그들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들의 불만은 대공국 내의 산발적인 폭력사태와 봉기를 불러왔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소요 사태가 계몽군주에 의한 개혁이 시행된 마인츠, 나폴리, 오스트리아 지배 하의 네덜란드 등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이 봉기에는 여러 동기가 있겠지만, 그들 역시 주로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가톨릭 신앙에 대한 회복을 주장했다. 이러한 반응을 시대를 거스르는 반동적 행위라고만 보는 것은 다소 단순한 해석일 것이다. 토스카나 계몽주의 개혁에서 보았듯이 당시 시행되었던 종교 개혁은 자신의 터전에서 오랫동안 일궈왔던 전통적 관습과 유대로부터 시민들을 유리시키고 단절시키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에타 보호소의 사례는 토스카나 계몽주의 개혁의 다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계몽군주에 의한 개혁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준다.

22) Ernesto Caioli, *I principali avvenimenti e i personaggi più noti del giansenismo toscano sotto Leopoldo I* (Firenze: Convento di Sa. maria del Carmine, 1983), p. 55; Faustino De Gregorio, *Storia e sistemi politici medievali e istituzioni ecclesiastiche* (Torino: G. Giappicheli Editore, 2015), pp. 202-203; Rudolf Schlögl, *Religion and Society at the Dawn of Modern Europe: Christianity Transformed, 1750-1850*, trad. en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20), pp. 53-54; Jacob Soll, “The Encyclopedic Prince: Grand Duke Peter Leopold (1747-92) and the Meaning of Tuscan Enlightenment” in *Florence After the Medici: Tuscan Enlightenment, 1737-1790*, p. 315

「18세기 토스카나 대공국의 계몽주의 개혁과 피에타 보호소」 토론문

임 동 현 (신한대학교)

먼저 변선경 선생님 논문 발표를 대단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피에타 보호소와 관련된 논문인데요. 우선 보호소 그러니까 이 conservatorio는 고아인 소녀들의 양육 및 교육기관입니다. 이 논문은 18세기 토스카나 대공이자 계몽전제군주였던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개혁 조치가 이 보호소에 야기한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1차 자료를 분석해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변선경 선생님께서 제기하고 계시는 주장의 주요 논지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반론을 제기할만한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물론 변 선생님께서 이 연구를 이탈리아어로 출판을 하셨다면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 이 연구가 이탈리아의 계몽주의나 혹은 보호소와 관련된 연구가 전무했던 한국에서 한국어로 발표되는 연구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독자들에게 친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구에서 피에타 보호소의 역사에 변화를 일으켰던 주요 동인은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개혁일텐데요. 이 개혁의 맥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피에트로 레오폴도는 훗날 그의 형이었던 요제프 2세의 뒤를 이어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레오폴트 2세가 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군주입니다. 토스카나가 합스부르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1737년 프란츠 슈테판이 대공의 자리를 이으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1740년 프란츠 슈테판과 결혼한 마리아 테레시아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군주가 됩니다. 이후 마리아 테레시아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때 마리아 테레시아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전쟁을 위한 왕국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국의 전 영토에 걸쳐서 시행되었던 강력한 정교분리주의 드라이브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시기에 이르면 이러한 정교분리주의 개혁이 더욱 강경해지게 되는 것이죠. 토스카나 공국 내에서 시행된 수도원, 수녀원 개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결국에는 제국의 재정적인 문제가 개혁의 핵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신다면 독자들이 논문에 대한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맺음말에 보시면 피에트로 레오폴도가 “스스로를 신에 대한 책무가 있는 종교 개혁자로 생각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와 분리된 국교회의 수장이 되려 하였다”고 서술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안토니오 무라토리나 체사레 베카리아, 피에트로 잔노네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이라고 서술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계몽주의자들은 “종교 자체” 그리고 교회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부르짖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

의 주장은 정신적인 영역 그리고 윤리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갖는 권위를 부정하지 않은 채 단지 세속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면책권에 대한 제한 그리고 세속적인 영역에서 군주의 우선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사레 베카리아가 인용했던 유명한 성서 구절이 있는데요. “신의 것은 신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입니다. 이탈리아 계몽주의자들의 정교분리주의 노선을 상징하는 엠블럼과 같은 문장입니다. 실제로 마리아 테레지아 시기에는 이 원칙이 잘 지켜졌습니다. 피에트로 베리나 체사레 베카리아와 같은 밀라노를 대표하는 계몽주의자들이 마리아 테레지아와 광범위하게 협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에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토스카나에서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개혁에 대한 반대의 물결이 일어났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의 계몽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정교분리주의에 비해서 피에트로 레오폴도가 훨씬 더 급진적이었고 그러한 급진적 정교분리주의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